

코스피	코스닥
3424.60 (-6.61)	841.99 (-4.72)
금리 (연이자율)	환율 (원/달러)
2.582 (+0.019)	1402.05 (+3.35)



형법상 배임죄 폐지된다 110개 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경제형벌 소상공인 옥죄 경미한 위반 전과자 양성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확대 형벌 대신 민사책임 강화 검토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비롯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형벌 제재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한다는 게 큰 골격이다.

민주당 권철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전담반(TF)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배임죄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제재 필요성이 있더라도 형벌이 필요 없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형벌을 부과해 전과자를 양성하는 제도를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타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간 형평성 확보’와 함께 증거 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배

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체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며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것까지 논의됐다”고 했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 측 공세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는) 작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논의된 것”이라며 “배임죄도 완전 폐지는 아니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부처별 중요시스템 전부 점검”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국가 전산망 혼란 최대한 줄여야 피싱 등 범죄 우려… 예방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시스템 마비와 관련해 “문제가 된다 싶거나 점검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건 전부 점검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저로서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국가 전산망 마비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와 혼란 최소화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게 잘못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중 운영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각 부처

에 이런 게(이중 운영장치가 없었던 게)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각 부처는 소속과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각종 시설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점검해보면)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제가 취임하자마자 장마에 대비해 배수구, 우수관 관리를 체크해 본 일이 있는데 1년에 2번씩 안 한 게 태반이었다. 규정을 만들어놓고 안 하고 있는 거다. 그때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비 피해는 줄여든 측면이 있다. 전부 스크린해 보라”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

	내가 살 때 (VAT포함)	내가 팔 때 (금방금방업기준)
순금시세 Gold24k-3.75g	776,000원 2.19% ▲ 17,000	697,000원 2.44% ▲ 17,000
18K 금시세 제품시세적용 Gold18k-3.75g	512,300원 2.44% ▲ 12,500	512,300원 2.44% ▲ 12,500
14K 금시세 제품시세적용 Gold14k-3.75g	397,300원 2.44% ▲ 9,700	397,300원 2.44% ▲ 9,700
백금시세 Platinum-3.75g	310,000원 -1.29% ▼ -4,000	255,000원 -1.18% ▼ -3,000 (자사백금기준)
	10,180원	7,440원

치솟는 금값

미 정부 섀다운과 약달러 영향에 금 1온스(28.35g) 당 가격이 3800달러 선을 넘어선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증로본점 전광판에 금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소비·투자 부진… 경기회복 제동

소비쿠폰에도 소매판매 ↓ 8월 산업생산 제자리 걸음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소매판매가 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서고 설비·건설 투자도 부진을 거듭했다. 6~7월 증가 흐름을 보였던 산업생산도 보합세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6월 1.6%, 7월 0.3%로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가 8월 들어 주춤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이 0.7% 감소했고, 건설업(-6.1%)과 공공행정(-1.1%) 부문도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6%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는 내수(2.5%)와 수출(0.8%)이 모두 늘면서 1.7% 증가했다. 재고/출하 비율은 100.7%로 전월 대비 1.1%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7%로 전월 대비 2.2%p 상승했다.

7월 하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됐지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4월(-1.0%) 이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8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4% 감소하면서 지난해 2월(3.5%)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1.0%)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9%)와 가전제품·통신기기 등 내구재(-1.6%) 판매가 감소했다.

백화점(-0.5%), 대형마트(-11.4%), 면세점(-0.5%), 슈퍼마켓·잡화점(-4.8%), 편의점(-2.1%) 전문소매점(-3.2%), 무점포소매(-1.7%)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승용차·연료소매점(2.8%)은 증가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7월) 으뜸효율가전제품 환급 사업으로 인한 거저효과가 있었고, 8월 아파트 입주물량이 감소해 가전제품(-13.8%) 판매가 줄었다. 7월에 갤럭시 Z 폴딩·폴드7 등 신제품 출시가 있어 8월에 통신기기(-13.6%) 판매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7월(7.6%) 증가로 전환했던 설비투자는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기계류(1.0%) 투자가 늘었지만 운송장비(6.0%)가 크게 줄면서 전월 대비 1.1% 줄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올인’서 ‘조율’로… 車업계, 전기차 브레이크

폭스바겐, 獨 공장 전기차 생산 중단 현대차 울산 1공장 2라인 휴업 지속 내연기관 전략 수정, 시장반전 모색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성장 정세에 맞춰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서며 등 투자 계획과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높였던 독일과 국내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공장의 물량을 조정하고 일시 가동 중단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세계 2

위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은 10월 6일부터 일주일간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작센 주 츠바이кау 공장의 전기차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이 곳은 아우디 Q4 e-트론을 생산하는 곳으로 미국과 독일의 전기차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스바겐 ID.4·ID.7을 생산하는 니더작센주 엠덴 공장도 일부 라인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현대차도 전기차 생산량 조절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29, 30일 울산 1공장 2라인의 생산을 중단했다. 1공장 2라인

은 현대차 준중형 전기 스포츠실용차(SUV) 아이오닉 5 등을 생산하는 라인이다. 이번 휴업으로 1공장 2라인은 올해에만 7번째 휴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국내 전기차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1공장 2라인 휴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9월 이후에도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 속도 조절을 이어갈 수 있다. 국내 전기차 수요 정세와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확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APEC 때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 모두 경주서 열릴 가능성도
▲한덕수 첫 재판 “계엄, 국가발전 차원선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진 뉴시스

▲통일교 前본부장 보석심문… “회유·증거인멸 우려” vs “위법증거”
▲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 재판 재개

▲정은경 “2071년까지 국민연금 안정적 운영 가능… 추가 조치는 필요”
▲균형발전 예산 편성 때 지방시대위 의견 반영돼야… 예산사전조정권 강화

“가상자산, 경제전반 영향력 확대... ‘이용자 보호’ 최우선”

금감원, 가상자산 CEO 간담회

이찬진 원장

“과도 이벤트·고위험 상품 지양 신뢰할 수 있는 상품 제공하고 인프라 구축 등 IT 안정성 중요”



이찬진(왼쪽에서 여덟번째)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이용자 보호를 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 자산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감독당국 수장이 직접 업계와 소통하며 시장 건전성과 책임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금감원은 30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원화거래소 4곳과 돌핀, 바우맨, 포블게이트, 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디에스알브이랩스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다사·DAXA) 임직원도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때 투기의 산물로 치부되던 가상자산이 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질서와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며 “국내 시장도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정책과 맞물려 크게 성장할 것”이

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성장과 발전은 이용자를 단순한 이익 창출 대상으로 여길 때는 지속될 수 없다”며 “과도한 이벤트와 고위험 상품 출시 등 단기 실적에만 몰두한 왜곡된 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IT 안전성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거래소 안정적 서비스와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인적 오류나 관리 소홀에 따른 ‘먹통 사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취약점이 보안사고로 확산되면 최근 금융·통신사 사례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

자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IT 안정성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며 IT 인프라 구축과 안정성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원장은 “거래소가 시장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 투자 확대 등 자체 감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AI와 온체인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실물경제와의 연계가 빠르게 확대되는 점도 경계 대상으로 보고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ET

F 등이 금융·실물경제와 맞물리는 만큼 작은 충격도 금융 불안으로 변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급격한 시장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CEO들은 “이용자 보호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의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허정윤 기자 zekova@metroseoul.co.kr

서울 ‘신통기획 시즌2’ 착공·입주단계서 병목 전문가, 반쪽성과 우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줄이겠다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내놨다.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세입자 이주 촉진 등 세 갈래 전략을 통해 최대 6.5년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와 기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갈등 요인과 사업성 제약으로 속도전이 반쪽 성과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즌2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치 간소화,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 축소, 해체계획서 간소화 등을 통해 기간을 12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 절차 단축 효과는 분명하지만 착공·입주 단계에서의 병목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30일 “신속통합기획 시즌2는 행정 심의 기간을 줄이고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해 노후 주거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부분적 성과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 단계까지는 속도 개선이 가능하지만 이주·철거 갈등, 분담금 부담, 공사비 상승이 맞물리면 착공과 입주 단계에서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강남·도심처럼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효과가 있겠지만 외곽은 추진력이 떨어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코스피 5000시대, 자본시장 선순환 효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 한국거래소·증권사와 활성화 논의

“오랜 세월 너무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됐고, 우리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하는 ‘코스피 5000’ 시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부가가치를 연속적으로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것.”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 임원 및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

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새로운 기술개발, 설비투자, 고용창출 등으로 이어지게 하고 이는 가계소득의 증가와 소비 확대를 발생시켜 기업의 매출 증가도 돌아오게 된다”며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던 돈줄기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유지되고 있는 코스피의 우상향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3200으로 뛰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배 수준에서 지금은 1.2배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 차원에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코스피 5000시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세계유산 축전

2025

고창의 보물, 자연과 사람을 그린다

10/2 - 10/22

고창 고인돌·갯벌

주최

국가유산청

주관

고창군

주관

국가유산진흥원

주관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해외거점 기반 조선 경쟁력 제고... 국내 생태계 약화 우려도

K-조선, 글로벌 진출 확대

인도·동남아·중동 등 생산거점 마련
인건비 절감·납기 대응력 확보 기대
“국내 건조능력 일정 이상 유지해야”

국내 조선업체들이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대응해 인도·동남아·중동 등으로 생산 거점을 넓히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절감과 납기 대응력 확보라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조선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업체들은 고임금 구조와 인력난, 납기 대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도, 동남아시아, 남미 등 현지 조선소와 협력을 확대, 생산 공정을 분산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인도 현지 조선소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 최대 규모 드라이도크를 갖춘 스완 조선소와 전날 양



HD현대는 지난 7월 인도 남부 코친조선소와 MOU를 맺고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과 품질 향상, 인력 양성 등 전방위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인도 코친조선소 전경. /HD현대

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신조선박 설계와 구매, 생산관리(EPM), 해양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HD현대 역시 지난 7월 인도 남부 코친조선소와 MOU를 맺고 설계·구매 지원, 생산성과 품질 향상, 인력 양성 등 전방위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지난달에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과 동시에 싱가포르에 투자

법인을 설립, 지역 내 투자 관리와 설비 운영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남미에서는 페루 시마조선소와 협력해 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함을 현지에서 건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잠수함 공동 개발에도 나섰다. 중동에서도 사우디아와 협력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화오션도 지난 7월 인도 노이다에 글로벌 엔지니어링 센터를 열고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등 해양플랜트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페트로브라스의 FPSO 입찰에 참여하며 현지화 요건 충족을 위해 거점 확보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해양설비 전문업체 다이나믹 인수를 통해 해양플랜트 제작역량을 강화했다.

이 같은 해외 진출 강화 흐름은 단순한 진출을 넘어 중국과의 시장 점유율 경쟁과 맞물려 있다. 2025년 상반기 세계 조선 수주 점유율은 중국이 52%, 한국은 25%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품질과 기술 투자에서 성과를 내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해 발주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에 국내 조선소들은 납기 대응력과 수주 기반 유지를 위해 해외 생산 거점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장기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범용선박의 해외 외주가 늘면 국내 기자재·부품 산업이 위축되고, 인도 등 신흥국이 자국 기자재 산업을 키우면 국내 업체의 수출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진출이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 대응하는 수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내 기자재 업체의 입지가 줄고 숙련 인력 양성 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내 건조기반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신형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국내 연간 건조능력 1100만 CGT는 유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신기술 개발과 시험을 이어가고, 해외 현장에는 이를 적용하는 방식이 균형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ADB, 韓 경제성장 전망치 유지

(0.8%)

“美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발목”

李 정부 확장재정 정책, 내수 기어 전방
중 부동산 시장 침체 등 하방 요인 지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유지했다. ADB는 미국발 상호관세와 건설경기 부진 등을 부정적 요소로 꼽았다.

ADB는 30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0.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하다. 보고서는 “건설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 통상 불확실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하반기 내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7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 1.9%, 내년 1.9%로 두 해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8%, 내년 경제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각 정부의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 시행 등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으로 봤다.

다만 ADB는 통상 불확실성 외에 지정학적 긴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을 주요 하방요인으로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체 입법 등 주요범죄 처벌 공백 최소화”

» 1면 ‘형법상 배임죄 폐지...’서 계속

대체 입법을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을지 보면서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당정협의에 권 의원,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에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경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 두발언을 통해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

로 정했다.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외에도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미한 의무 위반도 형벌로 처벌되거나 법 위반 사항을 인지한 이후에 개선 노력을 기울일 여지도 없이 형벌이나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과 개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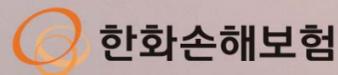
구윤철 부총리는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연세 기자 kys@

한화손해보험에 캐롯이 더해 집니다

여성의 삶을 케어하는 한화손해보험이
빠르고 혁신적인 캐롯을 만나
일상 속에 더 가까운 웰니스를 만들어 갑니다.

시작에 힘을 더하다



한화손해보험 전속모델 고윤정

‘신뢰 금융’ 변화·혁신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 열다

금융의 미래

NH농협금융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앞세운 모바일혁명의 ‘대전환’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인공지능(AI) 회사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9단의 바둑대결을 계기로 AI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는 AI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전환(DX)의 바람이 기업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대전환 시대’의 도래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이 같은 대전환기를 맞아 ‘생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전환기의 핵심동력인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편집자주)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이 내세운 화두는 ‘신뢰 금융, 혁신의 새로운 기준’이다. 고객의 눈높이에서 정체성을 다지고 변화와 혁신으로 경쟁력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끌어 올린다는 포석이다.

신뢰로 다지고 혁신으로 전진
고객 눈높이 경쟁·리스크 관리
생활 속 디지털 학습·보안 강화
작은 개선이 열여섯 미래 10년

NH농협금융의 뿌리는 실물경제, 특히 농업·농촌과 지역에 있다. 이 회장은 “모든 관점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뜻하고 ‘미래 경쟁력 제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농협금융 경영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

선언뿐 아니라 회장 메시지를 주간 단위 교육과 자가 점검, 현장 피드백 루프로 연결해 조직의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동시에 바꾸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단기 성과보다 신뢰의 축적, 개별 사업보다 그룹 차원의 일관성으로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다.

인재 전략도 여기에 맞춘다. 부서 경계를 넘나드는 통섭형 인재를 키우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으로 ‘말이 아닌 숫자’로 책임을 묻는 운영을 강화한다.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농협 금융’이란 표어는 슬로건이 아니라 실행의 기준선으로 자리잡고 있다.

◆ 디지털·보안·소통 생활화

디지털 전환은 거창한 전략보다 생활화된 학습에서 출발한다. NH농협금융은 점심시간을 활용한 ‘디지털 런치 타임(Digital Learnch Time)’을 열어 최신 AX·DX 트렌드와 현업 적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

용 사례를 공유하고 다음 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업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현장 파일럿→성과 검증→전사 확산의 수순을 탄다.

사이버 탄력성도 끌어 올렸다. ‘2025 농협금융 정보보호·보안 포럼’을 통해 글로벌 화이트해커의 공격 트렌드와 방어 시나리오를 내재화하고 시스템 취약점과 대응 프로세스를 재정비했다.

경영진 타운홀, 고객경험 혁신 콘서트, 현장 코칭을 묶어 학습·보안·실행의 선순환을 만들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테마로 직원들과 만나 경영철학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NH농협금융의 디지털은 ‘거대한 발표’보다 ‘작동하는 습관’으로 형성됐다는 평가다.

이찬우 회장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와 유연한 사고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농협금융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함께 소통하고 도전해 실력 있는 새로운 농협금융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 포트폴리오 다각화… 비은행수익 27.1%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숫자로 확인된다. 올 상반기 비은행 수익 비중은 27.1%로 2022년 23% 대비 4.1%포인트(p) 높아졌다. 같은 기간 비은행 수익액은 4408억원을 기록했다.

은행의 안정적 이익에 더해 증권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이 ‘농협금융 고객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시장 회복 효과, 보험의 질적 성과 관리가 조합을 이뤘다. 자산운용전략회의에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운용 고도화와 리스크·성과 관리 체계를 점검해 변동성 국면의 대응력을 키웠다.

또한 ‘은행 중심’에서 ‘그룹 포트폴리오’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익 구조의 균형과 자본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은 런던 거점을 중심으로 I B·운용 연계를 넓히고 있다. NH농협금융은 최근 NH농협은행 런던지점 최종 인가 획득에 발맞춰 글로벌사업의 취약 요소로 거론됐던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 권역의 투자금융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NH투자증권 런던법인과 시너지를 제고 중이다.

아시아 핵심 허브와의 접점을 확장해 범농협 시너지 지도를 촘촘히 그리고 있다. NH농협은행 노이다지점에 이어 인도 내 영업망 확장과 현지 최대 비료협동조합인 IFFCO와 조인트벤처(JV)방식의 여신전문회사에 경영 참여 중인 NH농협캐피탈에 더해 새롭게 NH투자증권이 인도시장에 진출한다면 NH농협금융만의 포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생·녹색·소비자보호

NH농협금융의 상생은 슬로건이 아니라 설계 방식에 있다. 데이터 기

반의 소상공인 대안평가, 모험자본 공급, 지역 상권과의 동행 모델을 통해 실물경제의 숨통을 트는 구조를 만든다. 동시에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정례화해 민원 패턴을 사전 분석하고 적합한 상품 안내와 해피콜 개선 같은 우수 사례를 그룹 차원에서 확산한다.

올 9월에는 여신을 취급하는 전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시스템’을 일괄 구축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기반해 심사·사후관리·모니터링·내부통제를 하나로 묶은 그룹 표준이다.

비은행 수익 27.1% 성과
런던·인도 진출, 글로벌 확장
녹색여신 시스템, ESG 표준화
소비자보호·체질개선 병행 도약

현장에서 자동 추천과 그룹 대시보드(그린보드)로 정책 적합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다. 상생·소비자보호·녹색금융을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엮어 신뢰의 총합을 높일겠다는 전략이다.

변수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 금리 둔화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압력, 연체·지정학 리스크, 글로벌 경기의 파고가 교차한다. 농협금융은 소비자보호와 ESG 표준화, 디지털 학습·보안 내재화로 균형을 잡고, 비은행 다각화와 글로벌·운용의 입체 확장으로 체질을 더 단단히 하겠다는 목표다.

이찬우 회장은 올해 초 경영전략회의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회사별 핵심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기존의 방식을 초기화 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과 도전정신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신뢰 금융, 혁신의 새로운 기준이란 다짐이 말로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작동하는 작은 개선이 매일 쌓이고, 그 축적이 곧 다음 10년을 여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전략회의에서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NH농협금융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LEEUM
In partnership with
KB Financial Group

리움미술관 현대미술 소장품전 전시 후원
사진 이한구, 사진 제공: 리움미술관



KB ART GALLERY

Kiaf SEOUL | KB금융그룹



Kiaf SEOUL 2024, 2025 리드파트너

문화가 꽃 피는 나라
희망이 자라는 대한민국

K-팝부터 K-무비까지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문화강국, 대한민국

그 주인공인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더 쉽게 접하고
K-컬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Kiaf SEOUL, 리움미술관 후원
전국 45개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까지
국민의 금융 KB가 힘이 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KB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

신청 경로 KB스타뱅킹 ▶ 국민지갑 ▶ 편의 ▶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전 국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무료 전시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 바로 가기



KB금융그룹

“자본은닉·탈세 우려… 스테이블코인 그림자 꼼꼼히 살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토론회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원화 ‘실질적 수요’ 근본적 의문”
“日의 외환규제 회피 방지 규제
우리 규제체계 수립에 참고해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지급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을 높이고 자금 은닉, 탈세 및 자본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란 금융혁신에 가려진 그림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자본유출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 준비자산 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 등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달러·유로·엔화와는 달리 아직 국제화 수준이 미미한 원화의 경우, 과연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있다”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반면, 기축통화국과는 달리 비기축통화로서의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더욱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동혁(앞줄 오른쪽 네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안착되면 K-콘텐츠 같은 강점 산업을 결합해 세계를 더 큰 무대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도 많기 때문에 도입이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에 미칠 영향

까지 면밀히 살펴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결제 목적으로 발행돼, 일정한 고정가격으로 언제든지 법화로의 교환이 가능한 디지털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뜻한다. 시세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전제로 하는 다른 디지털자산과 달리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나 금 같은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고 은행 예금, 단기 채권, 비트코인 등을 준비자산으로 해 일정한 가치를 유지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일정하보니,

지급수단적 성격을 띄게 됐고 테더(USDT), 서울의 USD코인(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요건 강화, 자금 세탁방지 법률 준수 의무화 등을 담은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를 가결시킨 바 있다.

한국은 민병덕·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자격 기준, 지급준비금 요건, 인가제 등을 담은 규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표시 지급수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외환규제 정책의 우회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자금세탁, 탈세, 재산해외도피 등 외환 모니터링 체계로 포섭되지 않는 자본의 국경간 이전 규모가 증대될 위험이 존재한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에도 규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주변호사는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외환법 과정에서 디지털 자산의 지급수단적 기능에 주목해,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규제 회피 행위를 방지하고자, 법화를 통한 지급 및 수령, 자본거래와 동일하게 규제를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규제 체계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규제 수준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므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환규제 적용 범위와 수준에 관한 세밀하게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여야, 국정감사 일정 추가의 건 등 대립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與 “대법관, 6만쪽 읽었는지 알아야”
野 “대법관 압박 수단으로 일정 추가”

국회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 줄줄이 불참한 가운데, 여야는 30일 국정감사 일정 추가의 건과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놓고 대립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주요 청문회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 예고됐지만, 청문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1명씩 총 2명뿐이었다.

청문회 시작 전 여야는 10월 15일 대법원을 현장방문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안을 추가하는 건으로 대립했다. 여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때 대법관들이 6만쪽

에 이르는 재판 관련을 다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문서접속기록 로그기록, 접속시간, 열람시간, 소요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현장 방문 일정 없이 국정감사 계획서를 통과시켰음에도 대법관과 대법원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정을 추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운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를 후인 두번째 합의기일에 대법관 표결을 통해 유죄판단을 결정한 것을 두고 “AI도 아닌데, 6만쪽을 이틀만에 다 읽었다고 한다”며 “국민께서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전자문서접속기록과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에 100만명이상의 국민이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법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이미 국정감사 전체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했었고, 그때 국회에서 (국감을) 다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을 가지 않는 이유까지 상세히 설명했다”며 “오늘 갑자기 또 하루를 추가하면서 대법원에 가서 국정감사를 하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일정이 추가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청문회의 적절성을 두고도 대립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결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출마 시도 관련 흐름을 설명한 뒤 “본질은 한 전 총리가 조 대법원장의 만남 여부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 성급하게 해서 대선 개입을 했냐에 있다”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기업 미래위한 선택” vs “이재명 구하기”

여야 ‘배임죄 폐지’ 이견

민주당 “정당한 기업 활동에 날개, 질서 어지럽히면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형법·상법상 폐지 구분 손해끼친 기업가에 면책주는 법”

당정이 30일 배임죄 폐지에 한 뜻은 모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려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도 같은 맥락이다.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며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다.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다.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측 가능한 법 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이라며 “정당한 기업 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

당은) 형법상, 상법상 배임죄 폐지인지 구분해야 한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하게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도 민주당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 (민주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렇지만 배임죄는 기업의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기업가 등이 처벌 대상이다. 이들이 기업에 경제적 손해를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배임죄”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라며 “그런데 이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나. 기업에 손해를 끼친 기업가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법이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경미한 피해에 대해 지금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의에 의해 신중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 밖에 없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글로벌 완성차 경영전략 ‘친환경차’로 수정

>> 1면 ‘울인서 조율로...’서 계속

이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친환경차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아우디는 2033년 내연기관차 생산 종료 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10년 간 내연기관차 생산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전환을 선언했던 포르쉐와 오펜델 계획이 수정하고 있다. 포르쉐는 타이칸과

마칸 일렉트릭에 이어 순수 전기 카이엔과 718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모델을 2030년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스텔란티스 그룹 산하 브랜드인 오펜델은 지난 2021년 스텔란티스 EV 데이에서 2028년까지 전기차만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기존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략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2027년 EREV 모델 출시를 예고했으며 기아도 미국 시장을 겨냥한 픽업트럭에 대한 적용을 검토중인 상태다.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 램은 하반기 EREV 픽업트럭 램차저 1500을 출시할 예정이며, 포드는 대표 상용 밴 트랜짓의 EREV 버전을 2027년 전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EREV는 내연기관 엔진으로 전기를 생산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1회 충전 시 900km 이상 장거리 주행이 가능해 ‘중간 단계의 전기차’로도 불린다.

/*양성운 기자 ysw@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위해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 대 전 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곳에서 새로운 AI 시대가 펼쳐집니다

‘150조 성장펀드’ 장기투자 기회 보험사, 회계·자본규제 넘어야

AI·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로
보험사 장기투자 기회도 확대
ALM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 필요
IFRS9 공시 활용, KPI 개선 유도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AI·에너지 등 초장기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보험사의 장기투자에도 관심이 쏠린다. 보험업계가 희소한 장기자산을 국내에서 확보할 창이 열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회계·자본 규율의 문턱을 넘어 실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내려면 ‘자산부채관리(ALM) 중심’의 실무 해법이 먼저라는 평가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 미래 모빌리티와 K-AI시티 실현,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인프라 투자를 기획하면서 생산적 금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사는 실물경제와는 괴리된 국제 등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성해 왔는데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률 하락에 고전하고 있다. 특히 수익성 있는 장기투자물이 부족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의 장기대체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따라서 생산적 금융은 수익성 있는 국내 장기자산을 찾는 보험사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 펀드와 같은 장기투자물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현행 회계기준은 보험사가 새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산적 금융과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도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펀드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관련 장기투자자가 IFRS9의 당기손익 반영이 불가피하고 지급 여력비율(K-ICS) 자본경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김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사의 지급능력 정보 제공이 목적인



Chat GPT가 생성한 보험 생산적 금융 이미지.

자본규제 감독회계(K-ICS)와 경영성과 정보 제공이 목적인 일반회계(IFRS9 금융자산, IFRS17 보험부채)가 보험부채에는 그 가치 변동을 자본에 곧바로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장기투자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보험산업이 K-ICS를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고, 당기손익 변동에 따른 채무형 장기투자의 과도한 회피를 완화하려면 IFRS9 공시의 적극적 활용과 투자성과지표(KPI)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회계 관점의 첫 관문은 IFRS9이다. 현금흐름이 불확실한 장기투자는 통상 당기손익으로 처리돼 분기 손익 변동이 커진다. 반대로 만기가 없고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 인프라펀드 처럼 보유성이 뚜렷한 자산은 지분형 분류를 통해 가치변동을 자본으로 반영할 수 있다. 최초 인식 시점의 분류와 공시 원칙을 일관되게 정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자본규제의 문턱도 높다. K-ICS는 불안정 현금흐름 자산에 높은 위험자본가중을 부여한다. 프로젝트 구조와 계약의 질에 따라 요구자본이 급증하면 K-ICS 비율이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단기채 선호로 회귀하는 악순환이 생긴

다. 이를 끊으려면 적격 인프라 요건을 명문화해 예측 가능성이 높은 자산에 합리적 가중을 적용해야 한다.

공시와 KPI는 ALM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채 대비 자산 민감도, 현금흐름 갭, 헤지 커버리지 같은 지표를 정기 공시에 포함하고 내부성과관리는 배당 여력뿐 아니라 ALM 개선, 장기수익성, 자본안정 기여도를 함께 반영하는 다중 KPI로 전환하는 편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

관건은 정부·시장·회계·감독의 맞물림을 보험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다. 정부의 150조원 드라이브가 자금의 유량을 만든다면 보험은 그 유량을 ALM이라는 그릇으로 받아 자본의 안정을 증명해야 한다.

김선임연구원은 “당기손익 변동에 따른 채무형 장기투자 회피 유인을 완화하려면 보험사는 IFRS9 공시를 적극 활용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K-ICS 효과와 함께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설득력 있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ALM 적합성 등 장기투자자 관련한 내부성과지표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가치 극대화 및 일관된 의사결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인터넷 안되는 산간에서도 위치 확인

국토부, G-VRS 시범 서비스
센티미터 단위까지 측정 가능

앞으로 인터넷이 잘 연결되지 않는 도서·산간 지역에서도 센티미터(cm) 단위까지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격자형 측위보정정보 서비스(G-VRS)를 시범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센티미터(cm) 단위까지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번 대국민 시범 서비스는 약 300명 정도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그동안 제공되던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이 꼭 필요해 도서·산간 지역이나 차량 등 인터넷이 불안정한 경우 사용하기 어려웠다. G-VRS는 방송 신호만으로도 위치보정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인터넷 수신 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UHD, DMB, 위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인터넷 방식과 다르게 끊김이 적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GNSS 측위보

정정보를 사용하는 드론 택배 배송, 드론 농업 방제, 자율주행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G-VRS는 우리나라 전역을 ‘가로 20km x 세로 20km’의 격자 단위로 나눠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별도로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격자를 선택해 보정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G-VRS의 대국민 서비스에 앞서 정지측량, 자동차 주행, 드론 비행 등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 검증 등을 통해 기존 측위보정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측위보정정보 민간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현장 시연회와 1개월간의 사용자 테스트를 마쳤다.

측위보정정보의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신규 위성기준점 설치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흑산도, 거문도, 추자도, 울릉도 등 도서 지역에 위성기준점 4개를 추가 설치해 총 103개의 위성기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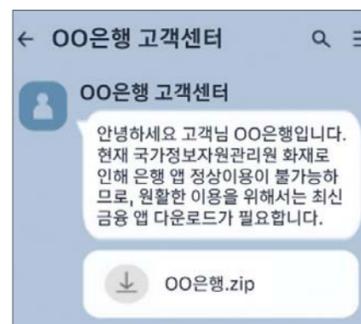
“국정자원 화재 스미싱 조심하세요”

당국,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등 우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일부 행정정보시스템 이용 제한에 따라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부 행정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금융회사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사기) 피해가 우려돼 발령됐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에도 카카오톡 설치파일을 위장한 악성 앱 유포와 사용자 확인을 빙자한 피싱사이트 접속 유도 등 수법이 기승을 부렸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문자 메시지 URL을 통해 금융 앱 설치파일을



금융기관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 예시. /금융위

을 제공하거나 임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니,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해 국정자원 화재 관련 신규 스미싱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경우 소비자경보를 ‘경고’ 이상으로 격상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asj1231@

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사기범 2913명 검거

총 538억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46명에 징역 7년 이상 중형 구형

정부가 대대적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이며, 작년 8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추가 검거했다.

또한 국토부 수사외도 등을 토대로 ‘무자본 겹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에 대해서는 형법상 ‘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특히 적극적인 검거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해 해당 기간 내 총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5·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로는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179

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인대인 및 관련자 42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외도했다. 이외에도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808건, 편법중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으로 인한 국제통보 56건이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 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토록 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 계약의 승계·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서도 치밀한 범리검토와 적극적 공소유지로 대응 중이다.

제2차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그 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총 1487건의 의심거래를 조사한 결과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외도했다.

올해 1분기부터는 AI를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이며, 시스템 고도화와 학습자료 지속 추가로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KB스타뱅킹 해외결제, 필리핀까지 확대

KB국민은행, QR결제 플랫폼
외화포인트로 100% 환율우대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를 필리핀 지역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사인 GLN(Global Loyalty Network)과의 제휴로 제공되며, 현재 태국, 일본, 대만, 라오스, 괌, 사이판, 하와이 등 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하고 안전한 현지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해당 서비스는 QR결제 플랫폼 중 최초로 외화포인트를 사용해 환율우대 100% 혜택을 제공한다. 외화포인트는 고객이 원할 때 전환할 수 있으며, 해외결제 시 현지 통화로 자동 차감된다. 이

를 바탕으로 고객은 환율우대 혜택과 수수료 절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필리핀 내 1000만여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KB스타뱅킹을 이용한 QR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고객들의 결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11월 2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필리핀 현지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첫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원)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해외결제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문혁수 LG이노텍 대표, 사업장 현장경영

“2030년 신사업 비중 25% 확대”

라이다 사업 본격화 아에바와 동행 레이더 투자로 자율주행 기술 강화 로봇 부품 협력, 보스턴 다이내믹스 차량용 반도체 모듈 시장 진출 가속 AI·우주·메디컬 등 미래 확장 청사진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최근 열린 사업장 현장경영에서 임직원들에게 미래 신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G이노텍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미래 신사업 비중을 2030년 전체 매출의 25% 이상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함께 달려 나가자”고 말했다.

30일 LG이노텍에 따르면 문 대표는 최근 사업장 현장경영에서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래 육성사업이 빠른 속도로 확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큰 미래 자산인 고부가원천기술과 글로벌 톱티어 고객들과 협력하며 체득해 온 사업 경험을 발판 삼아, 차별적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또 다른 일등 사업을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지난 2023년 말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문 대표는 줄곧 미래 신사업 확장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라이다(LiDAR) 사업 등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LG이노텍은 최근 라이다 기술 선도 기업인 미국 아에바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라이다 사업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았다.

파트너십 일환으로 LG이노텍은 아에바의 초슬림·초장거리 FMCW(주파수 변조 연속파) 고정형 라이다 모듈 공

급사로 선정됐다. 제품은 아에바의 소프트웨어와 결합돼 글로벌 톱티어 완성차 고객의 차량에 탑재될 예정이다. 제품의 양산 목표시점은 오는 2028년이다.

고도화된 자율주행용 센싱 솔루션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 레이더 사업도 동시에 육성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LG이노텍은 이달 초 4D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인 스마트레이더시스템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LG이노텍의 지분율은 4.9%다.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은 비정형 어레이 안테나 설계 기술 등 레이더 관련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내 벤처 기

업이다. 이번 지분 투자로 LG이노텍은 차량용 4D 이미징 레이더, 초단거리 레이더(USRR) 등 고성능 레이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LG이노텍은 오는 2030년까지 모빌리티 센싱 솔루션 사업을 2조 규모로, 이를 포함한 AD·ADAS용 부품 사업(센싱·통신·조명)을 5조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다.

로봇용 부품 사업도 올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5월 로봇틱스 분야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로봇용 부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LG이노텍은 올초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모듈(이하 AP 모듈) 시장에 출시표를 던지며 기존 전장 부품사업을 차량용 반도체 분야로 본격 확대했다. 문 대표는 차량용 AP 모듈과 고부가 반도체 기반인 FC-BGA를 필두로 LG이노텍을 반도체용 부품 시장 ‘키 플레이어’로 새롭게 포지셔닝하여 견고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한층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문 대표는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및 로봇틱스는 물론, AI·우주·메디컬 분야까지 LG이노텍의 원천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며 “고객과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거듭나는 것이 LG이노텍이 나아가고자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HD현대중,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착수

4만1000톤급 ‘앨런 셰퍼드함’ 입항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 SNS 앨런 셰퍼드함’이 정기 정비를 위해 울산 HD현대미포 인근 염포부두에 입항했다고 30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지난 8월 초 수주한 이 선박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 규모로,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시작하고 안전장비·설비 점검과 각종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올해 말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 필리핀 현지에 군수지원센터를 설립, 필리핀에 인도한 함정에 대한 MRO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 출범을 목표로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 HD현대미포의 도크와 안벽을 활용해 해외함정에 대한 사업 수행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선사업대표는 “앞선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MRO를 성공적으로 수행, 고객인 미 해군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운 기자 dhalehdhale@

포스코인터, 여수광양항 LNG 공급망 협력

2027년 1만2500㎥급 전용선 투입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9일 포스코플로우,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여수광양항 액화천연가스(LNG) 병커링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해운업계의 저탄소 연료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여수광양항 권역 내 선박연료용 LNG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3사는 광양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LNG 병커링 선박 도입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해 LNG 추진선박 연료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6년 완공 예정인 광양 LNG 제2터미널의 저장탱크와 병커링 전용 부두를 활용해 LNG 조달부터 병커링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항만 운영

주체로서 안전성 검토와 제도 지원을 담당하고, 포스코플로우는 선박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2027년 인도 예정인 1만2500㎥급 LNG 병커링 선박의 건조 및 운영을 맡는다.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강화로 LNG 추진선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2022년 말 354척이던 LNG 추진선은 2027년까지 778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병커링 시장 역시 글로벌 선사의 핵심 관심사로 부상했다.

여수광양항은 연간 6만5000척의 선박 입항과 2억1300만톤의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며 아시아·태평양 항로의 전략적 거점으로 꼽힌다. 일본 3대 해운사를 비롯한 글로벌 선사의 병커링 잠재 수요도 확인된 상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오는 2026년 3분기까지 제1·2터미널을 합쳐 총 133만㎥ 규모의 국내 최대 LNG 저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전자

‘1등급 가전’ 판매 두 달간 20% 증가
환급사업에 소비자 수요 확대

삼성전자의 고효율 가전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판매가 정부의 ‘옴표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하 옴표가전사업)’에 동참한 지난 2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옴표가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총괄, 한국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옴표가전사업에 발맞춰, 에너지를 절감하는 혁신 AI 기능을 갖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을 선보이는 한편 옴표가전사업에 대한 고객안내를 강화하고 다양한 구매 혜택도 제공해 고효율 가전 제품 확대에 적극 동참해왔다.

최대 30만원의 정부 환급 혜택과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최대 10%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등 다양한 구매 혜택에 더해 고효율 가전 구매로 인한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 효과가 소비자 수요를 이끌어 낸 것으로 분석된다.

/차현정 기자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 전환·승급 기준 그대로 보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발표 전환 비율 1대1, 제휴는 0.82 적용 우수회원 등급 자동 매칭 등 보장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등급에 필요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하며, 사용기한 역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대한항공은 9월 30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유지 ▲원하는 시점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의 전환 지원 ▲우수회원 통합 방안 ▲마일리지 사용계획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고객 역시 마일리지로 아시아나를 이용할 수 있다.

아시아나 고객의 경우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등급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이 적용된다. 마일리지의 소멸시효(사용기한)도

소비자별로 남아있는 기간이 그대로 보장된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좌석등급 공급량을 기업결합일(지난해 12월 12일) 이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고객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1,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1대0.82의 비율로 전환할 수 있다.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중 일부만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량 전환만 허용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 고객 중 마일리지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년 안에 언제든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전환비율에 따라 잔여 아시아나 마일리지에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또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우수회원(▲플래티늄 ▲다이아몬드 플러스(명성) ▲다이아몬드 플러스(기간제) ▲다이아몬드 ▲골드)은 유사한 수준의 대한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으로 자동 매칭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에서의 우수회원 자격기간은 그대로 보장된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트롬 AI 라인업 확장 나섰다

대용량 세탁·건조 성능·편의성 강화 AI DD모터·타임센싱으로 효율 높여

LG전자가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세탁 가전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

LG전자는 ▲트롬 AI 세탁기(25kg) ▲트롬 AI 건조기(25k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위시타워(세탁·건조 23kg) ▲트롬 AI 위시콤보 콤팩트(세탁 11kg·건조 6kg)를 순차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LG전자는 세탁·건조 과정을 제어하는 AI 기술로 신제품들의 성능과 편의성을 높였다. 핵심 부품과 AI가 결합된 ‘AI DD모터’는 세탁물 재질과 오염도, 세탁량을 분석해 6가지 모션 중 최적 모션을 적용, 옷감 손상을 줄인다. ‘AI 타임센싱’과 ‘AI 시간 안내’ 기능은 세탁·건조 시간을 정확히 안내해주며, 도어를 닫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는 ‘스마트 On’ 기능은 조작 과정을 단축한다.



LG전자가 AI 기능을 갖춘 다양한 세탁 가전을 선보인다. /LG전자

위시타워 신제품은 세탁·건조 모두 23kg 대용량이다. 세탁 후 별도 분리 없이 그대로 건조기로 옮겨 사용할 수 있으며, 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위시콤보 콤팩트는 기존 대비 크기를 줄여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며 하단 미니워시(2.5kg)를 통한 소량·분리 세탁 역시 지원한다. 세탁기·건조기 신제품은 국내 최대 25kg 용량으로 겨울 이불 등 부피가 큰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

세아그룹, 철강업 한계 넘는다 방산·풍력 등 고부가사업 육성

철강업황 부진 지속... 돌파구 모색
원전해체 분야 등 수익성 확보 나서
스페셜티 제품 생산거점 확대 계획

철강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아그룹이 활로를 찾기 위해 항공·방위산업과 해상풍력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범용 철강제품에서 벗어나 스페셜티 소재와 대형 구조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수익성 방어에 나선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관공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세아제강지주의 2분기 매출은 1조2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50억 원으로 0.9% 감소, 당기순이익은 455억 원으로 26.2% 줄었다.

특수강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세아홀딩스 역시 매출은 1조7000억 원으로 6.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446억 원으로 46.4% 급감했고, 순이익도 191억 원으로 46.8% 감소했다. 이는



세아그룹 본사 전경. (원형사진)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 /세아그룹

미국발 고물관세, 공급 과잉, 국내 철강 수요 부진 등으로 철강업황이 악화된 영향이다.

반면 항공·방산 계열사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올해 2분기에 매출 333억원, 영업이익 6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각각

31.7%, 82.1% 증가했다. 세아창원특수강도 고부가 스테인리스 판매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1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원전 해체와 해상풍력 시장도 미래 성장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세아베스틸 지주는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용기(CASK) 제작 경험을 갖춘 국내 기업 중 하나로 이미 해외 수출 실적을 확보했으며 한수원에 350억 원 규모 KN-18 CASK를 납품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는 2050년까지 400기 이상의 상용 원전 해체가 예상되며 관련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아그룹은 향후 스페셜티,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 거점도 확대해 대륙별 공급망을 구축하고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 전반이 범용 제품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유희은 기자 dhaldhale@metroseoul.co.kr



(왼쪽부터)휴넷 조영탁 대표, LG에너지솔루션 권영수 전 부회장, 서울대 김세직 명예교수가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내셔널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휴넷CEO포럼 - 포사이트 코리아 2026'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휴넷

권영수 “기업교육 역량, AI기술 성과 좌우”

〈前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휴넷 CEO 포럼

1000여명 온·오프라인 참석
경영 전략 등 5개 분야 32개 강연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 고성장 시대를 끝내고 ‘피크 코리아’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AI 기술’과 ‘사람 중심의 리더십’을 꼽았다.

기업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내년도 기업들의 사업계획 키워드로 ‘인공지능(AI)’과 ‘리밸런싱’을 선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휴넷이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내셔널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휴넷CEO포럼 - 포사이트 코리아 2026’에서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내년도 사업계획 시즌에 맞춰 국내 CEO와 임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로 1000명 가량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김세직 교수는 ‘피크코리아, 정점에 선 대한민국’이란 주제 강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저성장·인구 감소라는 ‘피크 코리아’ 시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를 포함해 지금 뭐라도 해야 한다.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피크코리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시몬스, ‘블랙 시몬스 데이’ 프로모션

‘뷰티레스트 블랙’ 등 할인 혜택

시몬스가 연중 최대 쇼핑 성수기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다채로운 혜택을 담은 ‘블랙 시몬스 데이(BLACK SIMMONS DAY)’ 프로모션을 펼친다.

30일 시몬스에 따르면 블랙 시몬스 데이 프로모션은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이자 침대업계 메가히트 매트

권영수 전 부회장은 ‘경영을 새로 쓰다: 새로운 질서 속 성공 방정식’이란 기조강연에서 “기업이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인사 제도의 혁신과 최고경영진의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직원’이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는 철학이 조직문화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AI는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AI를 도입하면 잉여인력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기업은 인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인재를 뽑아 철저하게 AI를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혁신과 창조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선 기조 강연을 비롯해 ▲경제·국제 정세 ▲경영 전략·혁신 ▲마케팅 ▲조직 인사·리더십 ▲테크·AI 등 5개 분야에서 총 32개의 강연이 펼쳐졌다. 특히 ‘AI Powered HR’, ‘AX의 실패 요인’, ‘컨슈머 AI’ 등 AI 관련 세션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트럼프의 신보호무역주의’, ‘2026 한국경제 전망’ 등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강연도 관심도 높았다.

휴넷 조영탁 대표는 “인구는 감소하고 AI는 모든 질서를 재편하며 빅테크는 산업 생태계를 근본부터 바꾸고 있다. 이제 ‘업데이트’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하는 ‘리셋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항공업계, 中 노선 기반 실적개선 나서

한중 무비자 입국에 맞춰 경쟁력 강화
“양국 여객수요 확보가 실적개선 좌우”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시행하면서 항공업계가 중국 노선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주춤했던 한·중 하늘길이 다시 ‘황금 노선’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부터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15일 이내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을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발 맞춰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증편과 신규 취항에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주당 194회

운항했던 중국 노선을 다음 달부터 주당 203회로 늘릴 예정이다. 인천~쿤밍, 부산~칭다오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고, 인천~푸저우 노선은 지난해 12월 신규 취항하여 현재 주 4회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3월부터 중국 노선을 기존 대비 주 26회 늘려 총 18개 노선, 주 164회 운항에 나섰다. 충칭·청두 노선을 재운항했으며, 다롄은 주 7회에서 10회로, 창사는 주 4회에서 5회로, 옌지는 주 5회에서 8회로, 창춘은 주 6회에서 9회로 증편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은 대형항공사와 차별화 전략을 내세운다.

제주항공은 부산~상하이, 인천~구이린 신규 노선과 인천~옌지, 웨이하이 증편을 준비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청주·대구~옌지, 인천

~우한 노선을 운항하며 지방공항 기반 확대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인천~상하이, 청주~연길, 부산~연길, 제주~상하이, 청주~장가계, 인천~정저우 노선을 운항 중이다. 지난 19일부터는 인천~옌티아 노선에 신규 취항했다.

진에어 역시 인천~칭다오 운항을 재개했고, 다음 달에는 인천~구이린 노선 신규 취항하면서 경쟁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번 중국 단체 관광객 복귀는 국내 LCC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LCC 업계 관계자는 “한·중 간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관광 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중소기업계 “국세행정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 해야”

중기중앙회 임광현 국세청장 간담회
세무조사 등 25건 제도개선 과제 전달

중소기업계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기업들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를 자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은 국세청이 내년에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해야 할 국세행정 서비스로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권혁홍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중

소기업 대표들과 임광현 국세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체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25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100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고 올해는 통상문제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선 세무조사에 대한 어

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국세청이 세무진담 기관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등 과감한 세정 개혁으로 기업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전했다.

임광현 청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기업에 불편함을 끼치던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승호 기자



링’이다. 각각 분리된 형태의 스프링이 움직임을 최소화해 옆 사람의 뒤척임에도 흔들림 없는 수면 환경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비렉스 모디 매트리스’ 출시

코웨이가 안정적인 지지력과 최적의 안락함을 갖춘 ‘비렉스(BEREX) 모디 매트리스’ (사진)를 출시했다.

30일 코웨이에 따르면 신제품은 편안함을 한층 강화하고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컬러와 모던한 퀴팅 패턴, 레이온 혼방 자카드 원단을 적용해 세련된 디자인과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가장 큰 특징은 ‘시그니처 독립 스프



미래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전부.

어쩌면 우리의 기술은
모빌리티의 일부.

하지만 이것은 분명,
미래 모빌리티의 전부를 뒤바꿀 것입니다.



이동 경험의 전부를 바꾸는
자율주행 솔루션



시각 경험의 전부를 바꾸는
IVI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의 전부를 바꾸는
차세대 전동화 시스템



익숙한 움직임의 전부를 바꾸는
E-코너 시스템

송치형, 네이버 최대주주 되나... '지분 스왑' 시나리오 촉각

〈두나무 회장〉

네이버-두나무 '주식교환'

송치형 회장, 지분 19% 확보
네이버 최대주주 등극 가능성
두나무 주주 동의가 핵심 변수
네이버 지분 희석, 2대 주주로

네이버와 두나무의 초대형 주식 교환 거래가 IT·금융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의 시선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향후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네이버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3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이르면 연내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의 핵심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가치 차이다. 시장에서는 두나무의 기업가치를 약 14조원, 네

이버파이낸셜은 약 4조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기존 두나무 주식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이 발행한 신주 3주로 교환할 가능성이 크다.

이 비율대로 주식 교환이 이루어지면, 현재 두나무 지분 약 25.5%를 보유한 송치형 회장은 단순히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19%를 확보하며 합병 법인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75%(전환 우선주 포함) 가량을 가진 네이버의 지분율은 19%로 희석돼 2대 주주로 내려앉는다. 형식은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지만, 실질적인 지배력은 두나무 주주들에게 넘어가는 '역인수' 형태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송치형이 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거래를 두고 장기적으로 네이버 본사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추가 합병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잇따르지만, 증권가에서는 추후 송

치형과 네이버 측의 '지분 스왑'을 통해 지배구조 확립이 마무리될 것이라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네이버의 지분구조를 보면 글로벌자산운용사 블랙록 6.1%, 국민연금공단 9.3% 등이 주요주주로 지목된다. 창업자인 이혜진 의장의 지분율은 3.5%에 그치고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구조다.

송 회장이 합병 법인에서 갖게 될 19% 지분을 네이버 지분과 스왑할 경우 단일기준으로는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 역시 합병법인의 지분에 근거해 경영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분 스왑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네이버 시가총액을 40조원(9월26일 기준)으로 가정하면 네이버 지분 10% 가치는 4조원 가량이다. 이를 합병법인 지분 20%로 산정하면 마찬가지로 4조원(20조원의 20%) 규모로 합리적인 교환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합병에서 두나무 주주들의 동의는 얻는 것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연 1조라는 확실한 실적을 보유한 두나무가 네이버에 흡수되는 그림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적 주식 교환은 두나무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두나무의 경우 창업자의 지분율이 높은 구조지만 김 부회장의 지분(13.1%)을 더해 38.6% 그친다. 주요주주로 거론되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10.6%), 우리기술투자(7.2%), 한화투자증권(5.9%) 등의 동의 없이는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편입 소식이 전해진 지난 25일 네이버 주가는 급등한 반면 두나무 주가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서 11.4% 급락한 25만4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다만 자회사 편입 후 미국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점쳐지며 두나무 주가는 전날 40만5000원까지 치솟아 3년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비범한 프로젝트' 1기 최종 선정자인 이윤희(34) 씨가 서울 중구 신당동 '코시아 커피'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NHN

NHN KCP

비범한프로젝트 1기 성료 코시아 커피 창업자 선정

NHN KCP는 30일 통합 창업 지원 서비스 '비범'을 통해 진행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비범한 프로젝트' 1기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자금, 운영, 홍보를 직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창업 지원금, KCP POS+포스기와 영수증, 매장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창업 준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는 패키지를 제공했다.

프로젝트는 지난 7월 말부터 약 2주간 비범 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비전과 사업 가능성, 경영 의지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자를 확정했다. 1기 선정자는 카페 '코시아 커피' 창업자 이윤희 씨로, 신당동 매장을 오픈하며 인테리어·청소 등 비범 제휴 서비스 지원을 적극 활용했다. 비범은 이 과정을 담은 콘텐츠를 앱과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추후 브랜딩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창업 스토리를 전할 계획이다.

NHN KCP는 올해 하반기 '비범한 프로젝트' 2기를 진행해 더 많은 예비 창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NC, 고객 상담챗봇에 세이프가드 적용

NCER에 자체 AI 안전성 기술 도입
레드·블루·퍼플 삼중 보안체계 기반

엔씨소프트가 국내 최초로 자체 AI 안전성 기술 '세이프가드'를 고객 상담 챗봇 'NCER'에 적용했다.

NC AI는 30일 엔씨소프트 고객 상담 챗봇 서비스 'NCER'에 자체 개발한 AI 안전성 기술 '세이프가드'를 정식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내 AI 기업이 종합적인 AI 세이프티 시스템을 상용 서비스에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이프가드는 레드팀, 블루팀, 퍼플팀으로 구성된 삼중보안 체계에 기반한

다. 레드팀은 악성 공격 패턴을 연구하고 블루팀은 방어 기술을 개발하며, 퍼플팀은 두 결과를 종합해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다. NC AI는 엔씨소프트와 협업해 게임 업계 특성을 반영한 챗봇 네거티브 규제 정책도 마련했다.

NCER는 2024년 도입된 서비스로, AI 기술과 게임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문의의 대응과 버그 제보, 건의사항 접수 처리해 CS 효율화와 만족도 향상을 이끌고 있다. NC AI는 텍스트 중심의 안전성 기술을 향후 비전-랭귀지 모델 기반 멀티모달 콘텐츠 탐지로 확장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넥슨-네이버, 콘텐츠-플랫폼 결합 추진

전략적 업무협약... 시너지 극대화
일상-게임 유기적 연결 경험 제공

넥슨과 네이버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플랫폼 결합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넥슨과 네이버는 30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콘텐츠와 플랫폼 경쟁력을 결합해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플랫폼 융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넥슨과 네이버는 방대한 유저 데이터를 활용해 일상과 게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1단계로 유저 계정과 결제 데이터를 통합해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이후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개인화된 게임 콘텐츠 노출, 네이버 게임 관련 콘텐츠와 넥슨 게임 연계, 네이버 플랫폼 내 게임 플레이 및 결제 기능 도입



30일 넥스코리아 강대현(오른쪽) 대표와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넥슨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과 연계한 지식재산권 협업과 공동 콘텐츠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넥슨과 네이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협업을 기반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국내 게임 및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야구 국대 경기 디지털 독점 중계

KBO와 국대평가전 파트너 협약
네이버 스포츠·치지직서 생중계

네이버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손잡고 국가대표 야구 경기 생중계와 티켓·굿즈 판매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야구 축제를 연다.

네이버와 KBO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회관에서 국가대표팀 평가전 '2025 네이버 K-베이스볼 시리즈' 프레젠틱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는 오는 11월 8~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 한국-체코전, 11월 15~16일 일본 도쿄돔 한국-일본전 등 총 4경기의 디지털 독점 중계권을 확보했다. 네이버 스포츠와 '치지직'을 통해 모든 국민이 무료로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으며, 경기 데이터·하이 라이트·스트리머 해설·실시간 채팅 등 인터랙티브 콘텐츠도 제공한다.

네이버는 경기 티켓과 굿즈 유통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오른쪽)와 허구연 KBO 총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네이버

도 나선다. 고척스카이돔 한국-체코전 티켓은 내달 30일부터 네이버에서 단독 판매되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는 선예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식 유니폼·모자 등 대표팀 굿즈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판매된다.

이외에도 대표팀 훈련 공개 행사 오픈 프랙티스, 팬 참여형 직관챗링지 영상 캠페인 등 이벤트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11월 통합 컨퍼런스 '단25' 개최

네이버는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AI 도구를 비롯한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 업계 파트너와 교류하는 팀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단25'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단24'에서 선보인 온서비스 AI 전략을 한 단계 발전시킨 자리로, 개발자와 창작자, 광고주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소통이 마련된다.

최수연 대표는 오프닝 키노트에서 기술, 크리에이티브,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유기적으로 융합한 새로운 AI 전략을 소개하고, 네이버가 그려갈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

이다. 검색·광고·콘텐츠 부문장들도 연사로 나서 사용자 일상의 변화와 글로벌 확장 전략을 공유한다.

양일간 기술·경험&크리에이티브 세션, 답다이브 세션, 서비스&비즈니스 세션이 진행되며, 네이버 AI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경험이 공개된다.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비즈니스와 콘텐츠, 오프라인 경험이 결합된 '그라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키노트 세션은 행사 당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생중계 알림 신청은 9월 30일부터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카카오

'AI 페스타 2025' 참가 모든 나를 위한 AI 공개

카카오는 AI 워크 대표 행사인 'AI 페스타 2025'에 참여해 일상형·플랫폼형 AI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카오는 30일 국내 최대 규모 인공지능 축제 'AI 페스타 2025'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가 공식 전략 주간 'AI 워크' 대표 행사다.

카카오는 '모든 나를 위한 카카오 AI'를 주제로 다양한 AI 서비스와 기술을 전시·시연한다. 이번 전시 부스는 '카카오 AI 스테이션'을 메인 테마로, 일상과 가능성 두 공간으로 구성됐다.

일상 공간에서는 카나나 요약하기, 카나나 인 카카오톡, 카카오톡에 적용된 챗GP T 기능을 선보인다. 가능성 공간에서는 자체 개발한 언어모델과 멀티모달 언어모델, AI 에이전트 생태계 플랫폼인 플레이MC P, AI 가드레일 모델 카나나세이프가드를 전시한다. /최빛나 기자

‘달리는 코스피’ 美 관세협상 등 복병 뚫고 날아 오르나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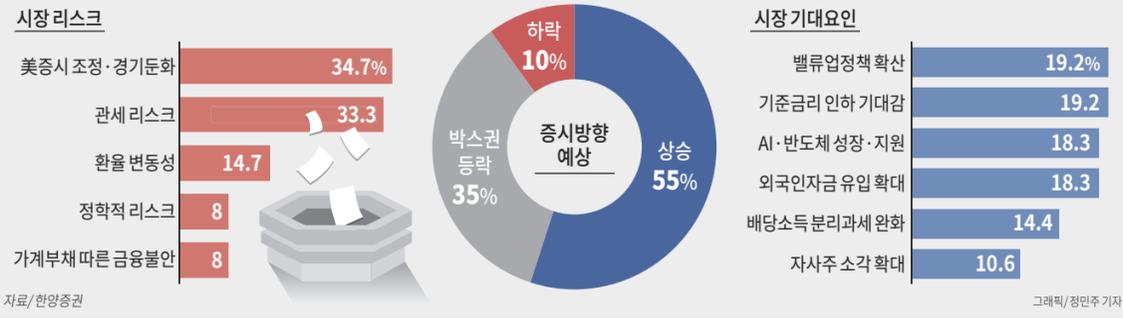
3분기 코스피 고공행진에도 개인 투자자 18조 가까이 매도
한양증권 PB 40명 대상 설문서 55% “추석이후 증시 상승할 것”
박스권 35%, 하락세 10% 그쳐

“누군가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했는데, 이걸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기도록 만들어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내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코스피·코스닥 ETF 투자의 수익률(26.4%)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제라고 하는 건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몇 가지 과제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코스피가 고공행진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3분기에만 18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다. 10월 코스피가 개미들을 ‘국장’ (국내 증

추석연휴 이후 증시 전망 한양증권 주요지점 PB 40명 대상 조사



시)으로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외국인 ‘사자’ 행렬과 3차 상법 개정안에 힘입어 코스피가 35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난항, 높아진 환율 부담 등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안갯속 관세 협상 vs 정책 기대감

지지부진한 대미 투자 협상은 증시를 끊임없이 괴롭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히며 파장을 낳았다. 3500억 달러는 8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4163억 달러)의 약 84.1%에 해당한다. 만약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게 되면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 금액을 7월 구두 합의에 따른 3500억 달러에서 더 늘리라고 압

박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관세 협상 리스크는 환율시장 불안으로 이어졌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도 낮아졌다. 지난 25일 미국의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가 3.8%로 발표되자 금리 인하 신중론이 힘을 받았다.

한양증권이 주요 지점 PB 40명을 대상으로 ‘연휴 대비 투자 전략 변화’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도 이 같은 불안은 확인된다.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 시장 리스크는 미국 증시 조정 및 경기 둔화(34.7%)와 관세 리스크(33.3%)였다. 환율 변동성(14.7%), 지정학적 리스크(8%),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불안(8%)이 뒤를 이었다.

시장 호재로는 밸류업 정책(19.2%)과 기준금리 인하(19.2%)를 꼽

았다. 정부정책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성장 및 정책지원과 외국인 자금 유입 확대가 각각 18.3%를 차지했다.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14.4%), 자사주 소각 확대(10.6%) 등이 꼽혔다.

호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한 국가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10월 코스피 상단 3500선

증권가는 10월 증시를 박스권으로 본다. 한양증권 설문조사에서 PB 절반이상은 연휴 이후 증시 흐름에 대해 ‘상승 가능성이 높다’(55%)고 봤다. 박스권

과 하락은 각각 35%, 10%에 그쳤다. 한국투자증권은 10월 코스피 등락 범위로 3200~3500을 제시했다. 신한투자증권은 3250~3550을 제시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 전망치는 높아지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을 좌우하는 환율도 부담 레벨로 올라간 상태”라며 “10월 주식 시장은 방향성 예측과 관련해 이익과 환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4분기 수출 경기는 이전보다 개선될 전망”이라면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업종이 나아진 업종은 일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시장 금리는 국내외 금리 인하로 인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두 변수를 종합하면 주목해야 하는 업종은 단연 IT로, 반도체, 하드웨어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체 업종 순환매 장세는 저물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재고활동 감소, 반도체 현물가격 상승세, 계약가격 관련 우호적 소식 등을 고려할 때 3분기에도 9월 코스피 약진을 견인하던 반도체업종이 유리하다”고 했다.

김인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금융시장은 물가둔화와 금리안정이라는 긍정적 신호와 동시에 고평가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린 전형적인 과도기 국면”이라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외화조달 강화... 증권금융 글로벌화 최선”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김정각 사장 “디지털 금융 시대 투자자 재산 보호 역할 확대할 것”

“증권금융은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내외 영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증권업권 지원을 강화하겠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외화 조달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증권금융의 글로벌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디지털 금융 시대에 투자자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국내외 금융당국, 정책기관, 금융업계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석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인사들도 축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전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증권사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한국증권금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역할을 수행할 때, 우리 자본시장도 안정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다”며 네 가지 당부 사항을 언급했다. ▲시장안정 기능 지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증권금융 창립 70주년, 국제 컨퍼런스’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하은기자

속 확충 ▲생산적 금융 동참 ▲인프라 기관으로서의 내부통제 강화 ▲글로벌화 및 디지털 혁신 등이다.

이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을 핵심 과제로 불공정 거래 근절과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정책은 5년간 지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도전의 실패는 재도전이 가능하지만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며 “단순히 규제 준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은 실질적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 문화를, 기업은 주주 이익을 지키는 건전한 거버넌스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컨퍼런스는 두 개 세션과 특별강연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투자자보호와 금융안정망의 역할과 과제’를 주

제로 진행됐다. 구정환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를 좌장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글로벌 투자자 보호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안정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흥 자본시장의 성장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제금융공사(IFC),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관계자들이 신흥국 자본시장 성장 사례와 증권금융사의 역할을 제시했다. 마지막 특별강연에서는 김준환 신한금융투자 디지털파트장이 인공지능(AI) 기술이 금융산업에 미칠 변화와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이날 국제 컨퍼런스 이후에는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증권금융기관들이 모여 ‘증권금융 협약식’을 진행하고, 다자간 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신하은 기자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 성장세 꺾였다

FIU, 거래 규모·시총 모두 줄어 전기 대비 이용자수·신규상장 ↑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올 상반기 거래 규모와 시가총액이 모두 줄어드는 등 성장세가 꺾였다. 다만 전기 대비 이용자 수는 늘고 신규 상장도 증가하며 시장 자체는 확대 움직임을 이어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30일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신고한 25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17곳·보관·지갑업자 8곳)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실적과 시장 동향을 집계한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9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10조

5000억원)보다 14% 줄었다. 일평균 거래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12% 감소했다. 영업손익도 6185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7446억원)보다 17% 줄었고, 원화 예치금은 6조2000억원으로 반년 만에 42% 급감했다. 반면 거래 가능 이용자는 1077만명으로 6개월 새 107만명(11%) 늘었다. 거래 가능 개인 이용자 가운데 30대가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40대(27%), 20대 이하(19%), 50대(19%), 60대 이상(7%) 순이었다. 아울러 50만원 미만 소액 보유자가 70%에 달했고, 등록 계정 수는 2444만개로 6% 증가했다.

상장 종목 수는 중복 포함 1538개로 181개(13%) 늘었다. 원화마켓 신규 거래지원은 207건으로 반년 만에 80% 늘었고, 코인마켓 신규 상장은 2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순자산 5000억

KB운용, 3000억 돌파 2개월 성과

KB자산운용은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 시리즈가 순자산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3000억원을 돌파한 지 2개월만의 성과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의 3개월,

6개월, 1년 기준 수익률은 각각 24.22%, 49.15%, 59.08%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23개 해외 커버드콜 ETF 중 1위에 해당한다.

KB자산운용은 현재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을 포함해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등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 3종을 운용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尹정부 신규댐 계획 제동 걸려 환경부, 지역 반발에 절반 철회

14곳 중 7곳 건설 중단 공식화
수입천·단양천·옥천댐 등 제외
무리한 재추진·주민반발 원인
규모 작아 홍수·가뭄 효과 미흡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 중 절반이 백지화된다. 지역 주민 반대가 심하고 필요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는 7곳이 취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규댐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건설 추진이 중단되는 7개 댐은 강원 양구의 수입천댐, 충북 단양의 단양천댐, 전남 순천의 옥천댐, 전남 화순의 동북천댐, 강원 삼척의 산기천댐, 경북 청도의 운문천댐, 경북 예천의 용두천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며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는 등 현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댐의 필요성·적정성·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벌였다.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를 비롯해 지역 주민 간 찬반논란 등이 고려 대상이었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가 작은 여러 개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14개 신규댐 중 일부는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되었음에도 무리하게 댐을 재추진했다. 게다가 댐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밀하게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만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예고대로 환경부는 신규댐 중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짓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 등 3곳은 지역 반대가 심해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을 보류했었다. 이번에 4곳을 추가로 제외된 것이다.

나머지 7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추가적인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천댐(충남 청양·부여)과 감천댐(경북 김천)은 지역 내 찬반 논란이 첨예한 만큼, 기본구상에서 댐 백지화, 홍수조절,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천댐(경기 연천)은 홍수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가례천댐(경남 의령)과 고현천댐(경남 거제)은 수문을 우선 설치하여 홍수조절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화야강댐(울산 울주)과 병영천댐(전남 강진)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업박람회서 한돈 ‘영양적 우수성’ 강조

한돈자조금, 비타민B1·아연 등 알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계기로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영양학적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25~28일 나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한돈자조금은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을 컨셉으로 소비자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한돈의 매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단순한 정보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한돈이 가진 건강한 가치를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 영상을 통해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박람회 기간동안 한돈자조금 홍보부스에서 ▲한돈의 신선함과 단백질·비타민B1·아연·셀레늄 등 풍부한 영양소 ▲BBC가 선정한 세계 8위 슈퍼푸드 ‘돼지기름(라드유)’의 가치를 확산했다. 또 국민 식탁의 대표 단백질로서 한돈이 가진 ‘한계 없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선보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기회도 가졌다.

현장에서는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

를 유도하는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한돈 SNS채널 팔로우와 퀴즈 참여를 통한 ‘한계 없는 능력, 한돈’ 룰렛 이벤트는 관람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었고, 레드백·쿠션인대·타포린백 등 다채로운 한돈 굿즈가 큰 인기를 얻었다.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찾았다는 이효선 씨(41)는 “귀촌에 관심이 많아 방문했다가 우연히 한돈 홍보부스를 들르게 됐다”며 “한돈에 단백질과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건 잘 몰랐는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또 “현장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이 한돈의 신선함과 영양적 가치를 체험하며 한돈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한돈자조금은 이번 박람회 성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다가오는 한돈데이(10월1일)를 기념해 서울 성수동 XYZSEOUL에서 ‘2025 슈퍼한돈페스타 팝업스토어’(10월 11~19일)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무보·경찰청, ‘K-치안산업’ 해외진출 지원

보험료 부담 완화·수출 컨설팅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경찰청과 함께 K-치안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무보는 지난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K-치안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안산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경찰청은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가기업과 치안 분야 국가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업 등을 발굴·육성하고, 무보는 수출보험 한도 우대, 보험요율 할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무료 1대1 맞춤형 컨설팅(Trade-Sure) 등을 제공한다.

무보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금융 리스크를 완화해 무역보험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이 대외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치안산업은 방범·보안 장비, 범죄 예방 솔루션, 과학수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산업군이다. 2023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매출액 38조원, 기업수 1만4000개, 종사자 66만명에 달한다. 양기관은 이를 차세대 수출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장진욱 무보 중소기업사업본부 부사장은 “이번 협약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 해외시장에 판로를 개척하는 치안산업 관련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수도권 집중 벗어나... 5극3특 균형발전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균형성장 전략 의결
초광역권 5곳·특별자치도 3곳 중심
150조 국민성장펀드·비수도권 투자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바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30일 확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5극(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5극3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이다.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을 목적으로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 기반 등 3대 분야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와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도 확대한다.

또 제조업 중심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전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AI 대전환을 기반으로 권역별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최근 출범한 국가 AI전략 위원회와 합동 전담반(TF)을 구성해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가 11월에 발표하는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5년간 150조 원이 투입되는 국민

성장펀드와 벤처투자시장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도 40%까지 늘린다. 권역별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사모(1개소)와 지역엔젤투자허브(4개소)를 권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추진한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설계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균형성장 정책을 5극3특 권역단위로 연결·조정할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등 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잡월드, 가족과 함께하는 ‘K-스킬데이’

9일 숙련기술체험관 특별 개방

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오는 10월 9일 ‘추석 K-스킬 데이(Skill Day)’를 열고 숙련기술체험관을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하루 동안 특별 개방한다.

이번 행사는 숙련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체험 기회를 보호자까지 확대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당일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숙련기술체험관은 2020년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 숙련기술 전문 체험관으

로, 전통·기초·첨단 기술 분야의 10개 체험실을 갖췄다. 자동차 뿌리 기술 등 국가산업을 이끌어온 분야를 직접 체험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된다.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도 마련된다. 체험객들에게는 석고방향제 만들기 체험이 무료로 제공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예약은 한국잡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병균 잡월드 이사장은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은 물론, 숙련기술의 가치와 미래 전망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워너 에어컨 18+6평
 월 63,900원
월 46,900원



LG 휘센 스탠드 에어컨 18평
 월 51,900원
월 34,900원



삼성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7,900원 → **월 900원**



삼성 AI Q9000 에어컨 17평+6평
 월 63,900원
월 46,900원



삼성 스탠드 에어컨 17평
 월 51,900원
월 34,900원



LG 휘센 벽걸이 에어컨 6평
 월 18,500원 → **월 1,500원**

일시용으로 ~~안 샀다~~
 헬로렌탈로 **잘 샀다!**

에어컨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 표기된 월 요금은 LG헬로비전 국민카드 월 70만 원 이상 사용 시 17,000원 할인 적용가 (-24개월)
 ※ 본 광고의 내용은 가전사 사정에 의해 모델명, 가격 (2025.06.01 기준), 외관이 변경되거나 조기 단종 품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 산불 피해복구 현황·혁신적 재창조 계획 발표

1조8310억 복구지원비 확보... 이철우 “돈이 되는 산 만들 것”

(경북도지사)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나서 영덕·청송 등 관광형 명품마을 조성 이 지사 “피해주민 일상 회복 최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 브리핑에서 후속 조치와 피해지역 재창조 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경북도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복구현황 및 혁신적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 브리핑에서 산불 피해구제와 복구 추진 상황, 특별법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설명하고, 피해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구상을 공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적극적인 건의 끝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8310억 원의 복구지원비를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기존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에 따라 4213억 원의 생계비와 주거지원비를 지급했다. 또 2430세대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했다. 국민들의 기부금 약 744억 원도 유가족 위로금, 구호소 현장 지원, 임시주택 건립 등에 활용됐다.

추석을 앞두고 이재민 특별지원도 시행했다. 자원봉사단을 통한 이·미용 봉사, 명절 선물 지원, 임시주택 소방·

전기·안전 점검 등이 이뤄졌으며, 심리 상담과 맞춤형 의료 지원도 지속될 예정이다.

산불 피해복구는 산불피해재창조본부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부는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농업과수개선사업단, 산림재난혁신단으로 구성돼 마을·농업·산림 부분의 복구를 전담한다.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 238곳에 대한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작업도 마쳤다.

전소 피해를 입은 24개 마을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특별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영덕 노물리·석리, 청송 달기약수터는 민간투자를 유치해 관광형 명품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영농모델, 산림경영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밸리 등 영농 기반을 복구·업그레이드하는 사업도 내년 본격 착수를 앞두고 있다.

지난 9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

법에는 경북도가 요구한 내용도 다수 반영됐다.

경북도가 제안한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 기본구상'에는 공동체·산림생태·문화관광·농업·환경에너지 등 5대 분야 38개 전략 사업이 포함됐다. 안동 산림휴양복합단지, 의성 산림경영특구 시범사업, 청송 산림미래혁신센터, 영양 산체스마트팜 혁신단지, 영덕 송이 생물자원 스마트밸리 등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투자펀드' 등 민간투자사업과 특별법이 시너지를 내 피해지역 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라는 비전은 경북도정의 핵심 과제이자 도민과의 약속이라며 “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피해 지역이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 추진

포항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보급자리조성사업에 동해면과 송라면이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으로 동해면과 송라면에 각각 28호 규모의 맞춤형 주택단지와 생활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세대 간 교류와 상생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청년 세대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활력 있는 농촌 마을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완도군, 어업인 안전장비 지원

완도군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는 총 13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군은 사업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전까지 어업인들이 안전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역' 사업 본격도

수자원공사, 철도공단 등 협력 서부산 복합 환승시설 역할 기대

부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부산~마산 복선전철 에코델타시티역(가칭) 신설을 위한 위·수탁 협의를 완료하고,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역사 신설에 따른 기관별 업무 분담을 확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관계기관 간 기본적인 협력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면으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시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며, 각 기관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인허가, 민원, 지장물 이설 등의 행정을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비 전액 부담 등 사업관리를 총괄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설계 및 시공, 인허가 신청 등을 담당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운영·유지관리 등을 담당한다.

시는 지난 3월 국토부 역사 신설 승인 이후 각 기관과 설계, 시공, 운영 등에 관한 협의를 완료했고,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역은 제2에코델타시티와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로 구축돼 역세권 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에코델타시티역은 부산~마산 복선전철 환승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강서선(트램), 가덕도 신공항 철도(부산신항) 환승시설로서, 서부산의 중심적인 복합 환승 시설 역할을 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목포시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투자벤처와 함께 '지방 살리기 및 상생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 두번째부터)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한성숙 중기부장관,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

목포시, 중기부·벤처투자 자매결연 협약

지방 소멸위기 대응... 소비진작 도모

목포시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투자벤처와 함께 '지방 살리기 및 상생소비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역경제 회복 및 내수 진작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연대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 행사 개최 및 휴가철 직원 방문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홍보 ▲지역 특산물 소비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

경북도가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3억 원이 감소한 1717억 원이다.

도는 특별징수 활동을 벌여 상시 추적이 어려운 가사자산, 주식 등 모든 금융투자 자산을 조사하고 압류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조사해 압류와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채납자에 대한 소유회생에 대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

업 제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결산 기준 체납액 1758억 원 중 지난해 말까지 528억 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경북도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에서 채납자에게는 단호한 행정적 조치와 제재를 할 것”이라며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영암역' 영업 개시... 남해안권 철도 연결

영암군 지역경제 상승효과 기대

영암군에 사상 처음으로 열차역이 생겨 목포와 보성을 오가는 영암군민과 관광객들의 발이 된다.

남해안권 철도망의 핵심축인 목포-보성선이 신보성역에서 개통식을 열고 정식 개통함에 따라 '영암역'이 지난달 27일부터营业을 개시했다.

목포-보성선은 보성군 신보성역에서 목포 임성리역까지 82.5km를 잇는

노선으로, 하루 열차는 평일 4회, 주말 5회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암역 신설로 그동안 철도를 이용하려면 목포나 나주 등 인근 역을 찾아야 했던 영암군민들은, 영암 내에서 바로 남해안권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영암역 신설이 지역 물류 활성화, 관광 접근성 제고 등 지역경제 전반에 상승효과를 불러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산청군

권역형 DMO 공모 사업 선정

산청군은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과 함께 권역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공모는 올해 첫 시범 사업으로 전국 1개소를 뽑았다.

4개 군은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과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조직을 육성한다.

사업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 협력단과 공동 추진하며 국비 2억 5000만원, 지방비 2억 5000만원 등 총 5억 원이 투입된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경성대, '글로벌대학30' 발탁

경성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글로벌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경성대는 앞으로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받아 K-컬처 중심 미래형 혁신 교육 기관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경성대는 이번 사업에서 K-컬처 주요 분야인 K-MEGA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부산에 K-컬처 자립형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부산 지역에 총 4개의 MEGA 309 캠퍼스를 구축하고, 5개 해외 글로벌 센터를 설립해 부산형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추석 연휴에도 택배 받으세요”... 유통가, 배송 총력전

쿠팡, 연휴기간 모든배송 이어가 “배송인력 휴식·연중무휴 전략”

컬리·SSG닷컴·11번가·홈플러스 추석당일 제외 대부분 정상운영 편의점 업계, 휴일없이 택배 운영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유통업계는 추석 기간에도 배송에 나선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우체국소포 등 배송업체가 3~4일간 휴식을 가지는 사이 유통업계는 연휴 배송 전쟁에 나섰다. 자체 배송망을 동원해 휴무일을 최소화하며 대부분 업체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배송을 이어간다.

◆새벽·당일배송, 대다수 추석 당일만 정지

컬리, SSG닷컴, 11번가,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는 추석 당일인 10월 6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내내 새벽배송과 당일배송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이 중 쿠팡은 추석 당일에도 쉬지 않고 모든 배송을 이어간다. 이러한 연중무휴 배송이 가능한 배경에는 쿠팡의 독자적인 배송 인력 운영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다. 쿠팡이 직접 고용하는 배송직원인 ‘쿠팡친구’는 주 5일 근무와

〈추석 연휴 배송하는 기업들〉

	배송명	연휴배송 방식
쿠팡	로켓배송	당일 포함 모든 날 배송
SSG닷컴	쓱배송	당일만 휴식, 전일 운영
11번가	슈팅배송	당일만 휴식, 전일 운영
컬리	셋별배송	당일만 휴식, 전일 운영
홈플러스	매직배송	당일만 휴식, 전일 운영
CJ온스타일	바로도착	당일만 휴식, 전일 운영

휴무가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스케줄 근무에 따라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휴식을 보장받는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가장 큰 경쟁력은 ‘택배 없는 날’과 같은 업계의 고질적인 딜레마를 구조적으로 해결한 독자적인 인력 운영에 있다”며 “직고용 인력의 휴무는 철저히 보장하고 워킹 기사들에게는 선도적으로 휴무제를 도입하면서, 배송 인력의 휴식과 연중무휴 로켓배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업체별로 배송 일정은 상이하다. 컬리는 추석 당일인 6일 물류센터가 휴식하며 7일 새벽엔 상품이 배송되지 않는다. 추석 전날인 5일 주문한 제품은 6일 새벽 배송받을 수 있다. SSG닷컴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쓱배송’을 운영한다. 권역에 따라 5일 오후 1~2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배송 받을 수 있다. 새벽 배송은 4일 밤 10~11시 이전 주문 시 5일 오전 7시까지 배송된다.

11번가도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오전 11시 이전 주문 시 당일배송을 운영한다. 그 외 지역은 10월 4~7일을 제외하고 자정까지 주문 시 익일배송 된다. 공휴일 전날과 토요일은 오후 10시 전까지 주문해야 한다. 익일배송인 ‘슈팅배송’은 추석 당일을 제외한 모든 날 운영한다. 11번가는 배송업체인 한진이 쉬는 10월 5~7일에도 별도 인력을 통해 배송을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근처 매장에서 직접 배송하는 매직배송을 운영한다. CJ온스타일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바로도착을 통해 서울 권역 한정 오후 1시 주문 건까지 구매 당일 물건이 도착한다.

◆퀵커머스·편의점 택배, 연휴 공백 메운다

주문 후 1시간 내외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퀵커머스 배송도 연휴 기간 배송된다. SSG닷컴의 바로퀵은 추석 당일 제외하고 운영하지만 일부 점포는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다. 5일과 7일은 주문 가능 시간이 1시간 단축된다. 컬리의 컬리나우는 추석당일과 다음날 휴식한다.

대형마트는 추석 당일에도 주문한 물건을 배송한다. 홈플러스는 추석 연휴 기간 매직나우를 통해 1시간 이내에 상품을 배달하며, 추석 당일엔 배달의민족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롯데마트 제타패스는 추석 당일 제외 전제 연휴 기간엔 정상적으로 배송한다. 추석 당일에도 전후 날짜로 지정해 주문할 수 있다.

편의점 업계는 추석 기간 휴일 없이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며 일반 택배 배송 공백을 메운다. GS25 반값택배, CU 알뜰택배, 세븐일레븐 착한택배 모두 운영한다. 세븐일레븐은 10월 한 달간 착한택배를 기존 대비 30% 할인된 1400원에 진행한다.

박세현 세븐일레븐 서비스상품팀장은 “추석 연휴에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배를 보낼 수 있도록 착한택배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홈플러스 MEGA 골든워크’에 나선 홈플러스. /홈플러스

홈플러스 명절 먹거리 할인행사 ‘홈플러스 MEGA 골든워크’

홈플러스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오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홈플러스 MEGA 골든워크’를 열고 명절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우, 키크랩 등 인기 신선식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다양한 할인쿠폰과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행사 기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농협안심한우 1등급 국거리/불고기’는 40% 할인하고, ‘농협안심한우 등심’은 농협쿠폰 추가 적용 시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호주 청정우 채끝’은 50% 할인한다. ‘갈비 유니버스’ 행사도 함께 열어 미국산·호주산 찜갈비와 LA식 꽃갈비 등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수산물도 러시아산 ‘레드 키크랩’을 50% 할인하고, ‘해동 오징어’, ‘완도 전복’ 등 ‘대한민국 수산대전’ 품목도 할인가에 선보인다. 과일은 ‘15Brix 프리미엄 알큰 사인머스켓’을 5000원 할인하며, ‘12Brix 홍로사과’는 농할쿠폰 적용 시 8000원대에 만나볼 수 있다.

/손종욱 기자

中 무비자 입국 맞춰 ‘K-푸드 페스타’

롯데마트, 15일까지 10개 점포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첫날인 9월 29일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은 K-푸드를 구매하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롯데마트는 이러한 방안 특수에 발맞춰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외국인 특화 매장에서 ‘K-푸드 페스타’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10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외국인에게 인기 높은 김스낵, 견과류, K-뷰티 상품 등을

최대 50% 할인해 선보인다. 또한 행사 기간 2만원 이상 구매한 외국인 고객에게는 한식을 형상화한 스티커 세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롯데마트·슈퍼 유포럼 커머스마켓 팀 담당자는 “9월 말 중국인 무비자 입국 한시 허용과 동아시아권 공휴일 시즌에 맞춰 외국인 방문객이 많을 것을 고려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주요 K-푸드와 K-뷰티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여행 기간 즐거운 쇼핑 경험을 누리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햇반 라이스플랜 슬로우 러닝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참가자들. /CJ제일제당

햇반 라이스플랜 ‘인기’ 연매출 700억 성장 기대

CJ제일제당, 누적매출 1000만개 정희원 박사와 ‘슬로우 러닝’ 이벤트

CJ제일제당 ‘햇반 라이스플랜’이 저속라이프 콘셉트로 소비자와 소통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라이스플랜’의 이달 매출이 평월(1~8월) 대비 약 50% 성장, 출시 후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누적판매량 1000만개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추세라면 ‘햇반 라이스플랜’은 연매출 700억원 이상의 대형 제품군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햇반 라이스플랜’은 ‘뚝뚝하고 체계적인 건강습관’을 모토로 정희원 박사의 저속식단 레시피를 활용해 지난해 11월 출시한 제품이다. 햇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살려 렌틸콩현미밥과 파로통곡물밥을 먼저 선보인 후 건강한 맛 품질과 지속노화 트렌드 확대와 맞물려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마트24, 자체브랜드 ‘엘로우’ 론칭

첫 신상품 ‘프루티’ 3종 선보여

이마트24가 10월 1일 새로운 자체브랜드(PL) ‘엘로우(Ye!low)’를 론칭하고 상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고물가 속에 가격뿐만 아니라 트렌드와 건강까지 고려한 차별화된 상품으로 고객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새로운 PL ‘엘로우’는 ‘품질은 ye! 가격은 low’라는 의미를 담았다. ▲가성비(옐로우 라벨) ▲트렌드(네이비 라벨) ▲건강(녹색 라벨) 등 3가지 콘셉트로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이 라벨 색상으로 상품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마트24는 기존 PL 상품을 ‘엘로우’ 브랜드로 순차적으로 리뉴얼하고, 첫 신상품으로 밀솔로지음료 ‘프루티’ 3종을 내놓는다. ‘프루티’는 제로 칼로리에 비타민 등 기능성 원료를 담은 것이 특징으로, 10월 한 달간 1+1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24 MD(상품기획)전략팀 김지웅 팀장은 “PL상품이 고객들이 편의점 브랜드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 고물가 속에 PL상품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품 개발 역량을 총동원해 동업계 대비 차별화된 PL상품을 개발, 가맹점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하이트진로 업사이클링 캠페인 ‘테라X플리츠마마’ 협업

하이트진로는 국내 대표 친환경 패션 브랜드 플리츠마마와 손잡고,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친환경 캠페인 ‘테라X플리츠마마’ 청정 협업을 진행하고 30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부터 이어온 청정 활동의 일환으로 ‘청정 캠퍼스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 순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대동제 현장에서 버려지는 테라·참이슬 페트병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굿즈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이다.

이번 협업은 두 브랜드의 철학이 맞아 가치소비 시대에 부합하는 캠페인으로 평가된다. 테라는 세계 공기질 1위 국가 호주에서 자란 청정맥아와 발효공정에서만 얻어지는 리얼탄산을 100% 사용해온 브랜드이며, 플리츠마마는 버려진 페트병을 가방으로 재탄생시킨 대표 친환경 브랜드다.

지난 5월 홍익대, 건국대 등 전국 5개 대학 대동제에서 ▲테라·참이슬 페트병 수거 ▲업사이클링 홍보 ▲업사이클링 참여 사연 접수 등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신원선 기자

첨단재생의료, 표준화 논의 활발... “임상 부족·규제 한계”

상업화 앞두고 제도 뒷받침 필요
국내 임상 승인 48건 불과, 정제
日·美, 치료 범위 확대, 국내 제한
안전성 확보 속 규제 유연성 논쟁

첨단재생의료의 임상 확대와 상업화
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뒷받침이 필요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의 유연성
과 안전성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는
30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에서
'제6회 첨단 재생의료 발전전략 국제 포
럼'을 개최했다. 차세대 재생医료를 정
의하고(표준화)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
기(상업화) 위한 행사로, 세포·유전자
치료제(CGT)를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에 대한 공정, 품질관리(QC), 규제·임
상·상용화 전략까지 전 주기를 다룬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세포 등을 활용
해 실시하는 치료다.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형성에 질병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며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 조직공학 치료, 융복합 치료
등으로 구분한다.

지난 2월부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임상 연구에 참
여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6회 첨단 재생의료 발전전략 국제 포럼'에서 권주하 메드비아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다만 올해 8월 기준 국내에서 첨단재
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현황은 상
급종합병원 44곳, 종합병원 50곳 등을
포함해 총 160곳이다. 첨단재생의료 연
구계획 적합·승인은 총 48건으로 세포
치료 33건, 유전자치료 5건 등이 포함됐
으며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적합·승인
은 총 0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이번 행사에서 권주하 메
드비아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지정된
의료 기관 수에 비해 임상연구는 부족한
상황이고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으로
환자 치료 기회 확대와 해외 원정 시술
감소를 기대했지만 큰 변화는 없는 실
정”이라고 짚었다.

권 대표는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위험도 분
류 재정이 필요하다”며 “사람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저위험, 중
위험, 고위험으로 나뉘는데 국내 중위
험 수준이 일본에서는 저위험에 해당한
다”고 설명했다. 저위험군을 확대해 저
변 산업의 발전을 이뤘다고 환자 치료
기회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
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생체 내 방식(인 비
보)’ 유전자 치료가 첨단재생의료 정의
에 포함되지 않아 임상 연구가 제한되고
있다. 권 대표는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허가가 안전성이 축적된 자가세포 치료

등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저위험으로 낮
춰 신속한 치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고 덧붙였다.

환자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일본혁
신재생포럼 최고임원인 스즈키 쿠니히
코 박사가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
다. 일본에서는 줄기세포 외 체세포, 면
역 세포 등에서 자가 세포를 동일 목적
에 한해 유연하게 사용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스즈키 박사는 “물론 검증되
지 않는 세포 유전자는 사용한다는 것은
법국가적인 문제이며 이를 규제하기 위
한 요건에는 임상적·과학적 증거, 품질
보증(QA), 의약품 화학·제조·품질관리
(CMC) 등 3가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첨단 재생의료의 적응증
범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미국, 유
럽 등에서는 희귀 및 난치성 질환에 국
한되지 않고 무릎 관절, 피부 등 일반
질환으로도 확장 적용되고 있다는 것
이다.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CARM) 황유
경 교육위원장은 적응증 확대는 단계적
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
다. 황 위원장은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
에서 치료보다는 임상에서 먼저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 상업화되기 전에 충분한
연구 결과를 축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스타벅스 코리아

‘세계 커피의 날’ 맞아 별 101개 증정 이벤트

스타벅스 코리아가 10월 1일 세계 커피
의 날을 기념해 전국 스타벅스 매장과
스타벅스 앱 온라인 스토어에서 풍
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 감사 이벤
트를 전개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10월 1일 단 하루 동안 스타벅스
전 매장에서 1만1103명에게 최대 별
101개를 증정하는 ‘101★JACKPOT’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계 커피의 날인 10월 1일에 맞춰 ▲
101명에게 별 101개 ▲1001명에게 별 11
개 ▲1만1명에게 별 1개를 제공한다. 최
대로 증정되는 별 101개는 별 8개로 교환
가능한 쿠폰 사용 시, 카페 아메리카노
12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수량이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 또는 간편 결제
로 바리스타가 제조하는 모든 커피 음
료 1잔 이상을 포함해 3000원 이상 결제
시 영수증당 1회의 스크래치 기회를 제
공하며, 사이렌 오더 및 딜리버스, 매장
POS에서 주문 시 참여가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가을철 피부, 깊은 보습으로 강화”

LG생활건강 ‘글로우:업 바이 비온드’
세라마이드 5종·펩타이드 5종 함유
탄력·보습 더한 새로운 제품군 선보

LG생활건강은 이마트 전용 브랜드
‘글로우:업 바이 비온드’에서 가을철 피
부 장벽 강화를 위한 신제품으로 ‘세라
마이드 펩타이드 영양장벽’ 5종을 새로
게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영양장벽’ 제품군은 기존 브
랜드 핵심 제품군 탄력 광채, 수분 진정
등에 이은 세 번째 시리즈다. 피부 장벽
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인 ‘세라마이드 5
종’과 피부 탄력을 더해주는 ‘펩타이드
5종’을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크림 스킨’, 세라마이드 성분을 충전
하는 ‘캡슐 에센스’, ‘보습 미스트’, 쌀알
보다 작은 3개의 마사지볼이 일체형 제



글로우업 바이 비온드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영양장벽’ 5종. /LG생활건강

품인 ‘Ux3 볼륨샷 컨센트레이트’, 안티
에이징 ‘크림’ 등 5종으로 구성됐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건조하고 지친
피부를 위해 깊은 보습과 진한 영양을 담
았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국콜마, AI로 화장품 패키지 검색 혁신

‘콜마패키지닷컴’ 선보여

한국콜마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글로벌 화장품 패키지 소
싱 플랫폼 ‘콜마패키지닷컴(Kolmarpk
g.com)’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콜마패키지닷컴은 고객이 원하는 화
장품 패키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
는 인공지능 기반 웹 플랫폼이다.

원하는 패키지의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리거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세계 각

국의 유사한 패키지를 찾을 수 있다. 패
키지의 종류(병·펌프·튜브 등), 제조국,
용량, 사이즈 등 다양한 조건별 필터링
기능을 통해 화장품 전 제품군에서 패
키지 선택 시간을 크게 단축 가능하다.

특히 글로벌 진출을 준비할 때 기존
3~6개월이 소요되던 패키지 선정 프로
세스를 최대 1개월 이내로 줄여준다. 패
키지 선정부터 공급업체 선택, 견적 요
청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단계를 일원
화했기 때문이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마데카 크림 메타몽’ 한정판 선보

센텔리안24 키링 등 굿즈 세트 기획

동국제약은 더마 화장품 브랜드 센텔
리안24에서 포켓몬 캐릭터 ‘메타몽’과
협업한 ‘마데카 크림 메타몽’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한정판은 센텔리안24의 첫 브랜
드 협업으로 대표 제품 ‘마데카 크림 타
임리버스’에 인기 캐릭터 ‘메타몽’ 굿즈
를 더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오는 10월 1일부터 올리브영에서 공
개되는 ‘마데카 크림 기획세트 2종’에는

돌돌 말아 접으면 키링처럼 사용이 가능
한 메타몽 포켓백 키링 2종이 포함됐다.

10월 14일 오후 5시 카카오톡톡톡에서
는 온라인몰 전용 ‘마데카 크림 기획세
트’가 출시된다. 메타몽 모습을 형상화
한 파우치 키링이 함께 제공된다.

동국제약 센텔리안24 관계자는 “이번
메타몽 협업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새로
운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활용도와 실용도를 높인 귀여운 굿즈를
포함한 한정판인 만큼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가 세계 커피의 날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전개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한국맥도날드

‘한국의 맛’ 메뉴 인기 판매량 3000만개 돌파

한국맥도날드의 대표 로컬 소싱 프로
젝트 ‘한국의 맛’ 메뉴가 이달 기점 누적
판매량 3000만 개를 돌파하며 의미 있
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의 맛’은 고품
질 국내산 식재료를 활용해 고객에게는
신선하고 색다른 맛을,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
로 탄생했다. 버거 재료로는 다소 생소
한 고구마, 마늘, 대파 등 한국 지역별
특산 식재료를 재해석해 메뉴로 개발
했으며 전 세계 맥도날드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메뉴명에 지역명을 명시한
현지화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맛을 통해 선보인
메뉴로는 버거 제품 ‘창녕 갈릭 버거’,
‘보성 녹돈 버거’, ‘진도 대파 크림 크로
켓 버거’,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와 더불어
음료 제품 ‘나주 배 칠리’, ‘한라봉 칠
리’ ‘영동 사인머스캣 맥피즈’, ‘순천 매
실 맥피즈’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시아 시장 공략 본격화

日 요코하마서 ‘바이어 재팬’ 참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10월 8~10
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아
시아 최대 규모 바이오·제약 전시회 ‘바
이오 재팬 2025’에 참가한다고 30일 밝
혔다.

바이오 재팬은 지난 1986년부터 일본
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리고 있고 현재 바
이오의약품, 재생의료, 디지털 헬스케
어,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 산업 전반
을 다루고 있다. 올해는 총 1139개 기
업, 1만8000명 이상의 인원이 행사장을
찾아 활발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할 것
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참가해 왔고 올해는 처

음으로 단독 부스를 마련한다. 적극적인
수주 활동으로 글로벌 상위 40위권 제약
사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항체·약물 접합체(ADC) 생산
역량, 5공장을 비롯한 세계 최대 생산 시
설, 의약품 위탁개발(CDO) 플랫폼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집중 소개한다. 항
체·약물 접합체(ADC) 전용 설비의 경
우, 올해 3월부터 본격 가동했고 윈스턴
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가 가능
한 것이 특징이다.

행사 첫날인 8일에는 제임스 최 영업
지원담당 부사장과 케빈 샤프 Sales&O
peration담당 부사장이 함께 발표 세션
연사로 나선다.

/이청하 기자

한국의인의
패스트 푸드를
세계인의
베스트 푸드로

| 리아 새우 |

| 리아 불고기 |



TASTE THE FUN

LOTTERIA™



우리금융그룹, 우수 SI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 공급
우리금융그룹은 한국인공지능협회와 'AI 산업과 금융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가 추천한 우수 SI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금융을 공급한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과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하나은행-신보,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 '맞손'
하나은행이 신용보증기금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데이터 교류, 네트워크 확대 등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서유석 하나은행 기업그룹 부회장(오른쪽)과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넷마블문화재단, 학생 창의·문화 교육 지원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 26일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과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넷마블문화재단 김성철 대표(왼쪽)와 서울남부교육지원청 한미라 교육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넷마블

오뚜기, '젠지 이스포츠' 후원

오뚜기가 글로벌 이스포츠 기업 젠지 이스포츠(Gen.G Esports)와 함께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하 월드 챔피언십) 기간 동안 공식 스폰서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월드 챔피언십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어지며,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스포츠 대회 현장에서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뚜기는 이번 협업을 통해 이스포츠와의 접점을 확대하며, MZ세대 및 글로벌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브랜드 친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CJ프레시웨이, 명절맞이 '효 선물 꾸러미' 나눔
CJ프레시웨이가 추석을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의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에게 영양 간편식으로 구성된 '효(孝) 선물 꾸러미' 25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효(孝) 선물 꾸러미'는 CJ프레시웨이 PB 상품을 포함한 간편식과 음료 9종으로 구성됐으며 임직원들이 포장에 직접 참여해 마음을 더했다. /CJ프레시웨이

최종현학술원-고등교육재단, 'SF, 로봇, 인간' 특별강연

“만화·영화 속 캐릭터, 실제 로봇 구현”

휴머노이드 기술 진화 과정 소개 “데이터가 AI·로봇 진화 이끌어”

최종현학술원과 한국고등교육재단은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SF, 로봇, 인간' 특별 강연을 공동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주형 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삼페인(UIUC) 교수는 디즈니리서치, 카네기멜런대 로보틱스 연구소(DARPA 프로젝트), 삼성전자 등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만화·영화 속 캐릭터를 실제 로봇으로 구현하는 과정과 휴머노이드 기술의 진화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연구실의 대표 성과인 파프라스, 링봇 등을 소개했다.



지난 29일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 빌딩에서 열린 최종현학술원·한국고등교육재단 공동 주최 '과학+α 융합 토크' 강연에서 김주형 일리노이대 어바나-삼페인(UIUC)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SK

김 교수는 “만화와 영화 속 상상을 연구실에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로봇 공학자의 도전”이라며 “로봇이 생활 속에 보급돼야 데이터가 쌓이고,

그것이 AI와 로봇의 진화를 이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김영재 LG전자 HS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스탠퍼드대에서 전기공학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애플에서 8년간 아이폰 통신 모듈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며 글로벌 현장을 경험했고, 이후 벨로다인 라이더에서 자율주행용 라이더 시스템 개발을 이끌었다.

현재는 LG전자에서 차세대 로봇 플랫폼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로봇이 물리적 세계에서 인간처럼 움직이는 피지컬 AI는 아직 10단계 중 2단계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충분한 데이터와 연구가 축적되면 결국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기반 B2B 솔루션 선택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관리 솔루션 산업 현장 근무자 보호·관리 도움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를 기반으로 한 기업 간 거래(B2B) 전용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 관리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 관리 솔루션'은 삼성전자의 다양한 산업 공간별 최적화된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B2B 솔루션 '스마트싱스 프로'와 '갤럭시 워치' LTE 모델을 활용해 산업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보호·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다.

현재 '갤럭시 워치7' LTE 모델에서 사용 가능하며 추후 지원 제품이



삼성전자 모델이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 관리 솔루션'이 적용된 '갤럭시 워치' 알림을 확인하고 있다. /삼성전자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솔루션을 통해 현장 관리자는 PC 또는 태블릿의 '스마트싱스 프로' 대시보드에서 '갤럭시 워치'를 착용한 근무자의 피부 온도, 심박수, 낙상 여부 등 생체 데이터와 주변의 온도·습도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프로 안전 관리 솔루션'은 열열지수 이상, 낙상 발생 등 근무자의 환경 변화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주변 근무자와 안전 관리자에게 긴급 알림을 전송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 관리자가 미리 설정해둔 위험구역에 근무자가 출입 시 근무자 본인, 주변 근무자, 안전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해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밀폐 공간에 갇히거나 화재 감지 등 근무자가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에 안전 관리 솔루션 홈 화면의 SOS 버튼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SKT ICT 패밀리, 협력사 대금 2560억 조기 지급

협력사 재정부담 완화 팔 걷어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사진)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1330억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SK브로드밴드, SK스



도아 등 ICT 패밀리와 함께 시행되며, 전국 1430여 협력사와 250여 유통망에 연휴 시작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포함한 올해 전체 조기 지급 규모는 2560억 원에 달한다. /김서현 기자 seoh@

SK텔레콤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고금리·고물가 환경 속에서 협력사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공사, 유지보수, 서비스 용역 등을 맡아 서비스 품질 유지에 힘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차그룹, '자율주행챌린지' 2차 대회 결승전

카이스트, 충북대 등 4개팀 경쟁

현대자동차그룹은 30일 서울 성동구 팩토리얼 성수에서 대학생 대상 자율주행 경진대회인 '2025 자율주행 챌린지' 2차 대회 결승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2010년부터 개최해 온 자율주행 챌린지는 국내 최대 규

모의 자율주행 경진대회로, 국내 대학들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 저변 확대에 기여해 왔다.

올해 행사는 1, 2차 대회 모두 베투얼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운영됐으며 '인공지능(AI) 엔드 투 엔드(E2E) 자율주행' 기술 경쟁을 펼쳤다. 이 기술은 주행 데이터와 도로 교통 상황 시나리오를 AI에 학습시켜 복잡하고 불

확실한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자율주행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29일 진행된 예선에서는 1차 대회 상위 6개 팀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KAIST ▲UNIST ▲충북대 ▲한양대 4개 팀이 결승에 진출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지난달 28~29일 이틀 간의 일정으로 울산 온산제련소를 방문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게르마늄 공장 신설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게르마늄 공장 현장점검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이 지난 28~29일 울산 온산제련소를 방문해 게르마늄 공장 신설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려아연이 신규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게르마늄은 야간투시경,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감지기 등 방위산업에 쓰이는 핵심소재다.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 기간 산업이자 탈중국 전략광물 공급망의 한 축을 이루는 주요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임직원 여러분 역시 국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넥슨컴퓨터박물관 '추석N박물관' 개최

넥슨컴퓨터박물관이 추석 연휴에 맞춰 게임과 전통문화를 결합한 특별 행사 '추석N박물관'을 개최한다.

넥슨컴퓨터박물관은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행사 '추석N 박물관'을 진행한다

추석N 박물관은 10월 6일을 제외한 9일간 박물관 전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입장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박물관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박물관 3층 Lab3.0에서는 '추석N 게임 Talk' 체험존도 운영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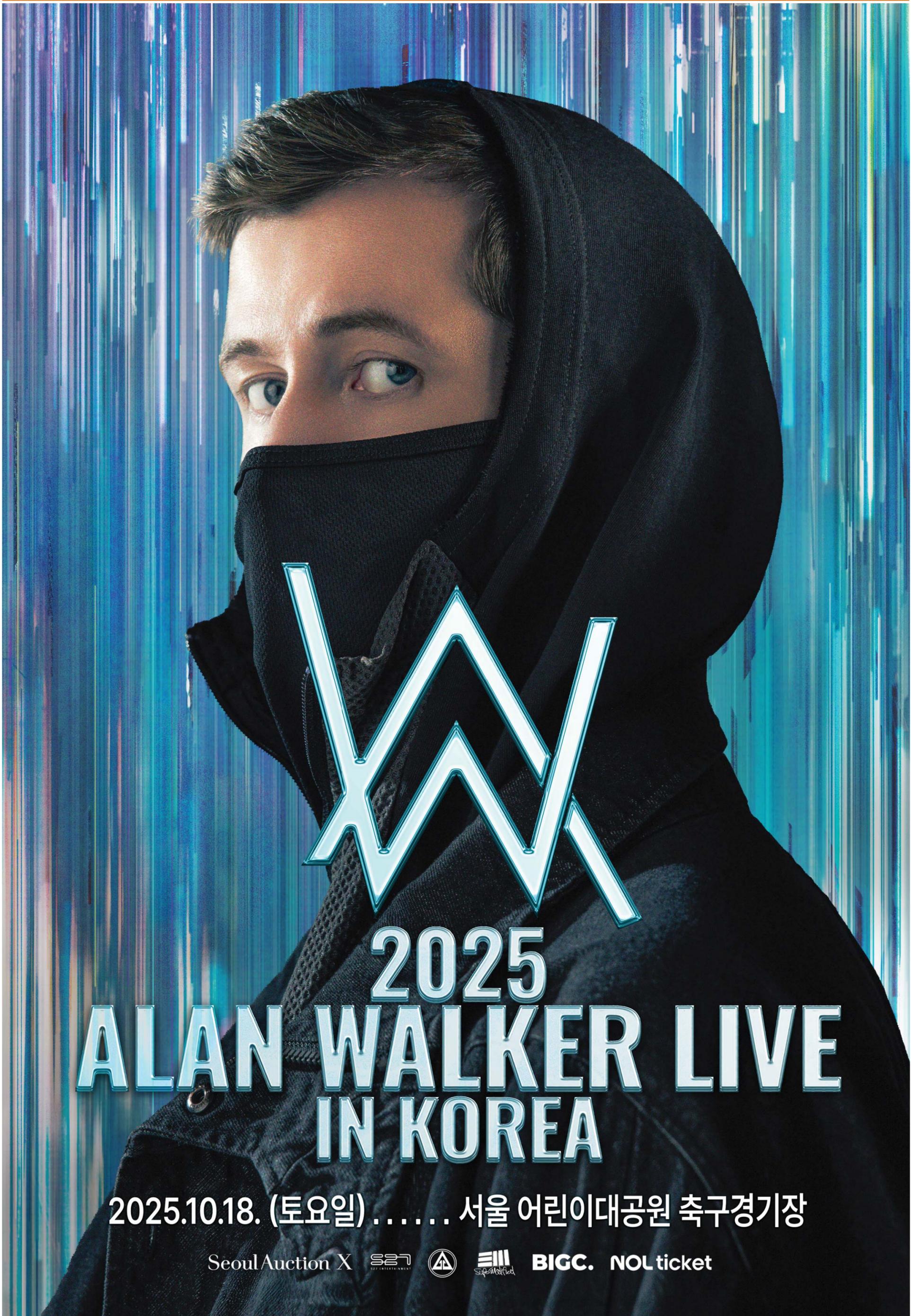
-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광주지역본부장 임승욱
- ◆이코노미리뷰·인티즌 ◇이코노미리뷰 △편집인 겸 편집국장(상무) 김호성 △산업1부장(국장) 최진홍 ◇인티즌 △컨텐츠 연구소장(이사) 김형호

부음

▲김갑순씨 별세, 정현구(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씨 모친상=30일, 광주수완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2일 낮 12시 50분. 062-959-4444

▲이호조(전 춘천지법 판사·전 이호조 법률사무소 변호사)씨 별세, 흥경관씨 남편상, 이양래(주)서북 개발자·이기청(전 국제기구 근무)씨 부친상 = 30일 오전 6시 27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일. 02-3010-2000

▲김영자씨 별세, 임상완·임상수(전 연합뉴스 경제에디터)·임상찬·임상덕씨 모친상 = 30일,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일. 02-440-8800



2025 ALAN WALKER LIVE IN KOREA

2025.10.18. (토요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축구경기장

SeoulAuction X S27 Supermodified BIGC. NOL ticket

제사와 차례 그리고 성묘의 차이



전 명 일 의
세상이야기

제사(祭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사시대부터 이어진 인간의 보편적인 신앙이자 풍습이다. 그 대상은 토함을 포함한 천지의 신과 조상들이었다.

따라서 제사는 유가(儒家)로부터 비롯된 것도 전유물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사는 유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람을 다스리는 도(道)에서 예(禮)가 필요하다. 예에는 오경(五經)이 있는데,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예기)

유(儒)의 어원 자체가 ‘사람(人)이 비(雨)를 구하는(儒) 것’으로 이는 무당을 뜻한다. 이들은 주나라부터 왕실 족보를 체계화하고 제례를 관장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현재 제사는 크게 기제사(忌祭祀)와 차례(茶禮), 그리고 흔히 성묘(省墓)라 부르는 묘제(墓祭) 등 세 가지가 있다. 이는 모두 조상을 추모한다는 의미는 같으나 그 기원과 형식에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일반적인 제사인 기제사는 해마다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 특정한 분을 기리는 의례다. 시간은 돌아가신 날 가장 이른 시간(子時, 23시 30분~01시 30분)에 지내는 것이 전통적 관행이다. 형식도 길고 복잡하다.

제사의 ‘제(祭)’는 고기 육(肉)과 보일시(示)가 결합한 글자로, 사육제(酬肉祭)가 변형됐다고 할 정도로 고기는 물론 밥과 국, 생선과 전, 과일 등 많은 음식이 올라간다. 이처럼 제사 음식이 푸짐한 것은 많은 참석자들의 식사까지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차례는 술을 금지하는 불교의 영향으로 특정한 사람이 아닌 특정한 날(설, 추석) 오전에 조상님께 드리는 집안의 통합 의례다. 음식도 명절의 특색인 떡국이나 송편을 올리고 제철 과일과 채소 위주의 소제(素祭)로 검소하다. 과정도 제사는 술을 세 번 올리고 반드시 축문(祝文)을 읽는 삼헌독축(三獻讀祝)이나 차례는 축문 없이 술을 사용해도 한 번만 올리는 등 간소하다.

유교에는 명절 제사가 없다. 따라서 차례는 후손이 모여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다. 성묘는 순전히 토속신앙에서 출발했

다. 유가는 신주(神主)라 불리는 위패(位牌)에 제사를 지내고 불교는 화장을 권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가야 사람들은 수로왕릉 옆에 사당을 짓고 일 년에 네 차례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설날, 한식, 단오, 추석의 묘제로 이어지고 있다.

성묘는 중국에도 없는 풍속으로 주자도 집안에 조상의 사당인 가묘(家廟)의 제례는 자세히 규정했으나 무덤의 제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은 무덤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당시 전체 송사(訟事)에서 묘지 소송(山訟)이 무려 80%를 차지했다고 한다.

유교권 국가 중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이다. 하지만 당시 유학자들도 묘제의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이처럼 우리 제례도 모든 문화처럼 관습에 유교, 불교 최근에는 서양 종교까지 혼합되면서 발전해 왔다. 예법에 ‘시대 흐름에 적합한 예’라는 ‘시례(時禮)’가 있다. 제례도 근본정신은 기억하되 시대와 세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

/前 언론인, 명리학자, 철학박사

빛속의 생존, 이제 본령을 증명할 때



허 정 연
(자본시장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24일 저녁. 고단한 하루를 마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퇴근길을 돌려 국회 앞으로 향했다. 우비와 플래카드 위로 붉은 빛방울이 떨어졌지만 “금융원 분리 결사반대”, “금융 소비자 보호하자”라는 구호는 멈추지 않았다. 단순한 조직 보전이 아니라, ‘분리’가 소비자보호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절박함이었다.

결과적으로 그 의침은 정치권을 움직였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통합감독 기구를 지키려는 금융원의 논리가 받아들여졌고, 조직 해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피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곧 정당성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제

금감원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이찬진 원장은 곧바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이라는 대대적 쇄신을 꺼내 들었다. 민원부터 검사, 상품심사까지 한 줄로 묶는 ‘원스톱 체계’ 조직개편,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듣는 ‘민원상담 데이’ 운영, 외부 의견을 반영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원장 직속으로 신설된다. 시민들이 “금감원이 ‘진짜’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선보인 장치들이다. 이렇게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와 행동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금융 감독’의 본령을 잃지 말아야 한다. 금융감독의 최우선 임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와 시스템 리스크 차단이다. 허술한 인허가와 규제 완화가 어떤 재앙을 불러왔는지 우리는 저축은행 사태와 사모펀드 부실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했다.

이번 사태는 정치의 입김과 관료적 이해가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냈다. 일부 전

문가들은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며 감독정책을 일정 부분 공적 민간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감위도 금감원 내부 위원회로 두어 독립성을 확보하자는 뜻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국회가 특별법으로 민간기구에도 일정한 공권력을 부여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을 함께 강화하는 문제의식은 귀담이들을 만다.

비 오는 날 거리로 나섰던 금감원 직원들이 외친 목소리는 단순한 생존 투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감독 현장에서 그날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금감원은 스스로를 구한 이유를 증명할 차례다. 소비자보호라는 약속에 안주하지 말고, 건전성과 독립성까지 끌어안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다음 정치적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감독기관의 길이다.

/zelkova@metrosoul.co.kr

오늘의 운세 10월 1일 (음 8월 1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정확한 거절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한다. 48년생 지는 입을 보면 내 신세를 보는 듯. 60년생 꿈을 버리지 마라. 72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84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37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보지 말고 벗어서 세탁. 49년생 상쾌한 바람이 부니 일도 상쾌하게 마무리될. 61년생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정겹다. 73년생 저축은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85년생 내가 믿어야 남도 설득시킬 수 있다.



38년생 남의 탓보다는 평소 무책임한 자신을 돌아보라. 50년생 저돌적인 일 처리로 피해를 본다. 62년생 바쁘지만 하고 싶음이 없다. 74년생 현 위치에서 자아의 눈을 다시 떠보는 것도. 86년생 집안의 문화를 현대에 맞춰 살피도록.



39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 51년생 새로운 만남으로 얻은 정보가 이익을 가져온다. 63년생 호사마마라 자기 능력을 펼쳐 재물을 논다. 75년생 모든 것을 혼자 맡으니 결과가 보람 있다. 87년생 근면 검소한 생활 태도를.



40년생 뜻하지 않은 곳에서 금전 운이 온다. 52년생 특출난 아이디어로 명망을 얻는다. 64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좀 긍정적으로. 76년생 양보다 질을 중시하니 마음이 바빠진다. 88년생 농사지를 땅을 살 때는 정말 신중히.



41년생 아침부터 마신 술잔이 온종일 간다. 53년생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65년생 공자께서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고 했다. 77년생 자식의 돈지갑도 생각해줘야. 89년생 대처관계에서 탈이 없도록 문서처리를 확실히.



42년생 집안이 소란해도 의지가 굳으면 흔들림이 없다. 54년생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66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78년생 무리한 미팅은 과한 지출로 이어진다. 90년생 둘더러도 두들겨야 지리밭을 밟지 않는다.



43년생 내키지 않아도 즐겁게 하도록. 5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67년생 투자한 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이다. 79년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 91년생 무슨 일이든지 위험이나 책임은 따르게 마련.



44년생 부부간에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이어진다. 56년생 어려운 일이 닥치니 미리 대비하자. 68년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80년생 영업이득이 나지 않아도 초지일관하고 분투하는 정신은. 92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허전하다.



45년생 재산문제가 닥치면 피하지 말고 정면대응을. 57년생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으나 뜻밖의 행운이 있다. 69년생 삶에는 위험요소가 늘 있는 법. 81년생 기존의 틀 습관에서 벗어나면 길이 보일 것. 93년생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46년생 재개발단지에서 제비가 들어오니 신중히 임하면 성사. 58년생 가까운 곳에 잠시 여행을. 70년생 중요한 연력이 닿으니 약속준수. 82년생 새로운 일에 투자할 생각이면 일주일만 더 생각해보라. 94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47년생 배우자에게서 기다리던 소식이 오니 즐겁다. 59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뜻대로 풀린다. 71년생 고집 피우지 말고 다수의 의견을. 83년생 놀다 보니 모아 둔 비상금이 바닥난다. 95년생 잡동사니 같은 방 안의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



김상회의 四季 추석 감회

귀뚜라미가 우는가 했더니 추석이 코앞이다. 매미가 여름의 대표 주자라면 귀뚜라미는 뉘니 뉘니해도 가을의 전령사다. 고려 때 저술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보면 궁녀들이 궁궐 안에서 귀뚜라미를 키웠다는 내용인데, 궁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궁녀들이 어릴 적 고향 집에서 들던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향수를 달래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누군가는 귀뚜라미를 ‘소울 곤충’이라고 부르곤 한다고 한다. 작은 벌레여도 해충이 많은데 귀뚜라미는 인간에게 위협은 커녕 오히려 수심을 달래주고 위안과 안심을 선사하는 것이다. 올 추석은 예상하는 바와 같이 황금연휴 중에서도 최상이다. 열흘에 달하는 기간이 연휴가 되니 말 그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외침이 절로 나올 것만 같다.

한편으로는 직장인들이야 연휴가 길어도 유급휴가이니 충전의 시간일 수도 있으나 자영업자들은 그 기간 수익이 줄 수밖에 없고, 연휴가 길다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것도 아닐 테니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터에다 근심이다. 그래도 추석은 좋다. 추수가 웬만큼 진행된 들녘의 풍광도 파사하고 햇사과며 햅쌀로 가게마다 풍성하니 먹지 않고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넉넉해진다. 아침저녁으로 몸에 착 달라붙는 선선함도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데, 한낮의 따끈함은 인디언 썸머의 호사를 누리게 한다. 점점 명절차례를 지내는 집도 줄어들고 있지만,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은 빼놓을 수 없다. 가장 여여적(如如適適)한 때 형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 앉아 약속들을 하며 회포를 풀다가 신문이나 뉴스의 한 면을 얘기하는 일도 단골 뉴스이다. 자식이 부모를 찾지 않아 상심하여 일어나는 불상사도 올해엔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듬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5			9		7	8	1	
8						3		
1	4		2	8				
			2		6			
2		4	6		9	5		7
		5		4				
				3	5		7	2
		2						3
3	7	1		6				9

1			7		3		4	9
6		3	4	9				
							9	
8				6			3	2
	9		3		8			5
5	6			3				4
	3							
					4	7	3	
3	4		6		2			8

QR 코드: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7	8	2	9	5	1	4	3
8	9	7	1	4	8	2	6	9
2	4	1	5	8	6	8	9	7
8	1	2	9	7	4	5	6	3
4	8	9	6	1	9	7	8	2
7	6	9	8	2	1	4	5	3
9	9	6	8	2	4	7	1	3
9	2	8	4	5	7	6	1	8
1	8	4	7	6	8	9	2	5

8	4	6	2	9	9	1	7	8
9	1	8	4	7	2	9	8	6
4	9	7	6	8	1	5	8	2
7	8	2	1	8	6	4	9	5
9	9	1	8	4	8	2	6	7
2	8	4	7	9	9	6	1	8
8	6	9	1	8	7	4	2	4
1	2	8	9	6	7	8	4	9
6	7	9	8	2	4	8	9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6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7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클릭 한번에 조선시대로 타임슬립!

시간탐험 '메타버스 역사교실'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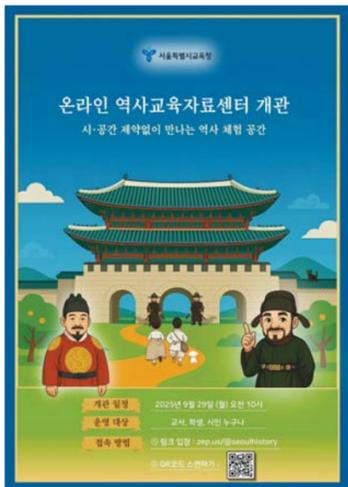
서울교육청, 역사교육 플랫폼 제공
초5·6학년, 중학생 대상 체험콘텐츠
미래지향적 역사교육 기반 넓힐 것

교과서를 넘어 메타버스에서 조선의 시간을 탐험하는 '온라인 역사교실'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은 누구나 접속 가능한 온라인 '역사교육자료센터'를 29일 오전 10시에 개통했다고 30일 밝혔다.

센터는 교육연구정보원이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웹SE(ZEP)' 기반으로 제작됐다. 전국 약 8000여 개 학교에서 활용되는 플랫폼으로, 저사양 기기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고 조작이 쉬워 초등학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동일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어 콘텐츠 공유도 용이하다.

주요 대상은 초등 고학년(5·6학년)과



온라인 역사교육자료센터 포스터.

중학생이며, 조선시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체험형 콘텐츠 4종이 순차 공개된다. 개관과 함께 공개되는 1차 콘텐츠는 조선 전기 경복궁을 배경으로 세종시기의 관리 생활과 한글 창제 과정을 다뤘다. 이어 ▲2차(10월 말): 조선 전기 중

로의 백성 생활 ▲3차(11월 말): 조선 후기 경복궁과 개항 이후 주요 사건 ▲4차(12월 말): 조선 후기 종로의 생활 변화를 다룬다. 역사자료를 축적·공유하는 아카이브 공간도 마련된다.

참여자는 가상 공간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역사적 상황을 체험하고, 사진·영상 등 자료와 연계한 탐구 기반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학생 참여와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유형 역사교육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들이 참여·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역사에 흥미를 갖고 스스로 사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함께 활용해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의 기반을 넓혀가겠다. 향후 순차적으로 콘텐츠를 추가 개발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추석연휴 서울 학교 주차장 225곳 개방

서울교육청, 안전한 주차환경 마련

서울시교육청(교육감정근식)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 7일동안 지역주민과 역(逆)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내 공·사립 각급학교 225곳의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교육청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개방 학교 명단과 학교별 개방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문

의는 해당 학교로 직접 하면 된다. 교육청은 행정안전부 '공유누리' 서비스에도 개방 정보를 제공하고, 자치구 협조와 경찰서 순찰 강화를 통해 안전한 주차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역귀성객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석 기간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장용선 삼육대 명예교수 1000만원 기부

개교 120주년 기념 기부 릴레이
대학 발전·외국인 유학생 지원

장용선 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가 은퇴 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대학 발전과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삼육대 개교 120주년 기념 '감동 기부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30일 삼육대에 따르면, 2023년 2월 말 정년퇴임한 장 교수는 31년간 삼육대에서 재직하며 삼육의명대 교학처장, 삼육대 인문사회대학장, 국제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국제교육원장 시절에는 재학생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

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유치해 글로벌 캠퍼스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퇴임과 함께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수훈했다.

장 교수는 "학교에 빛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다"며 "삼육대에서 받은 사랑과 배려가 제 인생을 지탱해 준 큰 힘이였다. 작은 정성이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장 교수의 가족은 오래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마린다에 거주해 왔다. 그는 기부를 마친 직후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현진 기자

교과서 가격 인하... 교육재정 부담 줄인다

교육부, 5개 출판사와 인하 합의
내년부터 39종 평균 4.9% 인하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아이스크림미디어, 천재교과서 등 5개 출판사와 합의해 2025학년도 공급 신간본 가운데 주문량이 많았던 주요 검정 교과서 39종의 가격을 평균 4.9% (종당 평균 541원)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하 가격은 2026학년도 1학기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하 대상은 2025학년도 신간본으로 공급된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로, 초등 26종·중등 8종·고등 5종이다. 참여 5개사는 2025학년도 검정 교과용도서 시장 점유율 84.7%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2009년 교과서 가격 자율화 이후 출판사 희망가격 중심으로 형성돼

온 가격 구조를 감안해, 과거의 '가격조정 명령' 방식 대신 출판사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협의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가격조정 명령은 소송으로 이어져 2019년 행정소송 패소 및 손해배상 발생 등 행정·재정 소모가 컸다. 이번에는 수차례 대면·비대면 협의를 거쳐 가격 인하에 합의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인하로 2026학년도부터 시·도교육청 교과용도서 구매 예산이 2025학년도 대비 연간 약 37억원 절감되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기간(6년) 동안 최대 222억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가격이 책정되는 2026학년도 적용 신간본에서도 주문량을 반영해 추가 인하가 가능하며, 2027학년도부터 추가 절감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인하된 가격은 오는 10월 중 관보에 게재돼 공식 확정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출판사와 합의해 가격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출판사도 이번 합의를 긍정 평가했다. 신광수 미래엔 대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는 성과"라고 했고, 양태희 비상교육 대표는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협력했다"고 밝혔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학생·학부모·교육청 모두에게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으며, 이옥상 동아출판 대표는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주환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는 "공공재 성격의 교과서는 적정 가격 형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시흥시 서울대병원 착공... 2029년 개원

800병상 규모 미래형 병원 건립

시흥시는 29일 오후 3시 시흥배곧동 서울대병원 건립부지에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병원 건립 사업을 공식화했다. 이번 착공식은 지난 8월 공사가 시작된 이후 병원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병택 시흥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조정식 국회의원, 유홍립 서울대학교 총장,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 시·도의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착공을 축하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경기 서남부 지역 유일의 국가중앙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 진료와 연구가 융합된 미래형 병원으로 건립된다. 총 67,50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들어서며, 800병상을 갖추고 27개 진료과와 암·모아·심뇌혈관 등 6개 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원은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원이 완공되면 그동안 지역 내에서 충족되지 못했던 필수 의료 수요가 해소되고, 생활권 내에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사당 수압·급수 안정 '까치산 배수지' 설치

서울시, 고지대 급수방식 전환
낮은 수압, 단수 문제 해결 기대

서울 동작구 사당2~5동 일대 고지대의 수도꼭지 수압을 개선하고 단수에 대비하기 위한 '까치산 배수지 설치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배수지와 송·배수관 설치 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4월 완공할 계획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현재 펌프를 활용한 고지대 급수방식을 자연 유하 방식(중력에 의해 물을 이동시키는 배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정전 등 전력 장애로 인한 급수 중단 위험을 줄이고, 고지대의 낮은 수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까치산 배수지 신설 사업은 서울시

'2040 서울수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중점 사업으로, 총사업비 188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까치산 배수지는 해발 85m 지점에 조성된다. 현재 사당동 고지대는 '직결급수' 방식으로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다. 하지만 배수지가 완공되면 낙차를 활용한 '간접급수' 방식으로 전환돼 수압이 개선되고, 기존 방식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웠던 급수 안정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10월 1일 (수) 음력 : 8월 10일

수도권 날씨 17~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4/25, 동두천 14/26, 파주 14/26, 가평 14/25, 서울 17/26, 양평 14/26, 인천 18/24, 수원 16/25, 용인 16/25, 평택 15/26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푸틴, 가을 징집령 서명... "12월까지 13만5000명 징집"
▲9월 중국 제조업 PMI 49.8·0.4P ↑ ...내수 부족에 6개월째 경기축소 /사진 뉴시스

▲캘리포니아주 뉴섬 주지사, 획기적 'AI 안전법' 최종 서명
▲北외무성 부상, 유엔 연설... "비핵화 불가 절대 철학없어"

▲아랍·이슬람 8개국, 트럼프 가자 종전안 환영... "진심 어린 노력"
▲美하원통과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現 규모유지' 명시



유통가
추석연휴에도
배송 총력전
나



Life

첨단재생의료
상업화 앞두고
표준화 논의

L2



본질 묻고 신뢰로 답하다... 박현주의 철학이 쌓은 투자신화

CEO 와칭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존에는 없던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미국 하와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글로벌 ETF 임직원 300여 명 앞에 나섰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홍콩 등 각지에서 날아온 이들이 동글게 둘러앉은 자리에서 그는 ‘킬러 프로젝트(Killer Product)’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단순한 격려도 공수표도 아니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숫자가 이를 방증했다. 같은 해 9월 1일 미래에셋증권의 연금자산이 50조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퇴직연금 34조, 개인연금 16조, 납입원금 대비 평가차익 8조4000억원이 쌓였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의 1년 수익률은 12.48%로 전체 업계 1위, 5년 수익률 역시 5.66%로 업계 최상위였고, 확정기여형(DC) 1년 수익률도 12.17%로 1위를 기록했다. 연금자산 50조라는 숫자는 단순한 규모 경쟁이 아니라 고객이 미래에셋에 부여한 신뢰의 무게였다.

2025년 8월 25일에는 그룹 고객자산(AUM)이 1024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752조원, 해외 272조원을 합친 규모로, 2024년 말 906조원에서 불과 8개월 만에 118조원 넘게 불어난 수치다. 미래에셋증권이 549조원, 자산운용 430조원, 생명과 기타 계열사가 45조원을 운용하며 만들어낸 성과였다. 1997년 7월 자본금 100억원으로 출발한 회사가 이제 고객자산 1000조원을 굴리는 그룹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국 자본시장의 상징적인 업적으로 남았다. 고객자산 1000조원 돌파는 단순한 장부상의 숫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국 금융산업이 글로벌 무대로 확장해온 발자취이자, 박 회장의 경영 철학이 집약된 성과로 평가된다.

◆박현주 매직, 글로벌 확장 성과 축적

박 회장의 서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극적인 장면들이 연속된다. 1986년 동양증권에 입사한 그는 45일 만에 대리, 1년 1개월 만에 과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샐러리맨 신화’라는 별명을 얻었다. 영업과 투자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동원증권 중앙지점장, 강남본부장을 거쳤고,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창업자본금 100억원으로 미래창업투자자와 미래에셋자산을 운용을 설립했다. 1999년 미래에셋증권을 세워 본격적으로 증권업에 뛰어 들었고, 2001년 그룹 회장에 올랐다. 2003년에는 국내 최초 해외 운용법인을 홍콩에 세우며 글로벌화를 선언했고, 2016년에는 대우증권을 인수해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로 통합했다. 2018년 증권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그룹 글로벌전략책임자(GSO)로서 해외사업을 진두지휘하며 또 한번의 승부를 걸었다.

글로벌 무대는 그의 실험장이자 성과의 무대였다. 2003년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영국, 중국 등으로 뻗어나간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11개국 20개 지점을, 자산운용 계열사는 19개국 법인과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를 ‘선 운용, 후 증권’ 전략이라 불렀다. 자산운용으로 기반을 닦고 증권사가 후속 진출하는 방식이다.

2024년 11월에는 인도 10위권 증권사 웨어칸을 4700억원에 인수했다. 국내 증권사가 인도 현지 증권사를 인수한 첫 사례였다. “인도에서 미래에셋의 두 번째 20년을 여는 출발”이라고 외친 그의 말은 선언처럼 들렸다.

박 회장에게 ETF는 미래에셋을 세계 무대로 확장시킨 핵심 무기였다. 글로벌 X를 앞세운 박현주의 ETF 전략은 미국, 호주, 캐나다, 홍콩 등지에서 뿌리를 내렸다. 2024년 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3개 지역에서 624종의 ETF를 운영하고 총 202조원을 굴렸다. 미국 ‘글로벌X’만 70조원 규모를 차지했다. 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국 페어몬트 하와이 호텔에서 열린 ‘미래에셋 ETF Rally 2025’에서 미래에셋그룹 박현주 회장과 글로벌 ETF 임직원들이 ETF 비즈니스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역원으로 전 분기 대비 4배 이상 늘어나며 해외에서 저력을 과시했다.

아울러 올해 6월에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amp;파트너스(S&P)가 미래에셋증권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2024년 3월 하향 이후 1년 3개월 만의 변화였다. S&P는 국내 업황 회복과 글로벌 수익기반 확대를 근거로 들며, 청산결제와 ETF 거래 등 선진국 시장 기반 수익원 확보, 2024년 웨어칸 인수를 통한 인도 내 WM·중개업 확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본질은 뭐냐”... ‘배려’ 있는 자본주의, 숫자 너머의 이야기

박 회장의 경영철학은 단순하다. 뮤추얼펀드, 해외펀드, 사모펀드(PEF) 등 국내 자본시장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안긴 금융상품 대부분이 그의 손에서 나왔다. 그는 단기 수익보다 고객의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했다. 박 회장은 직관과 본질을 강조하며 승부사적 기질과 동물적 투자감각으로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배려 있는 자본주의”를 외치며 기부와 사회공헌에도 힘을 기울였다.

사람을 중시하는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다. 2024년 조직가편에서는 1980년대 생 여성 임원들을 다수 발탁해 전체 임원의 20%를 여성으로 채웠다. PWM부문 김화중 부문대표(상무), 글로벌전략팀 문지현 상무, M&A팀 이제는 이사가 대표적이다. 이는 단순한 세대교체를 넘어 조직 다양성과 글로벌 감각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사회공헌 활동에서는 “최고의 부자보다 최고의 기부자가 되겠다”는 철학 실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010년부터 15년간 배당금 전액을 기부해왔으며, 2024년 배당금 16억원 역시 미래에셋공익법인을 통해 인재 육성에 쓰였다. 2023년 말에는 미래에셋컨설팅 지분 25%를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정하며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재단 기반을 강화했다. 1998년 부모의 유지로 설립된 미래에셋희망재단은 지금까지 누적 사회공헌사업비 1069억원을 집행하며 국내 대학생 장학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 현재, 연금 50조원, AUM 1000조원, ETF 232조원이라는 성과가 쌓였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그래서 본질이 뭐냐”는 질문을 던진다. 숫자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흔적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고객의 시간에 투자하는 기업만이 고객의 시간으로 성장한다는 믿음, 그 철학이야말로 미래에셋을 만든 ‘본질’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연금자산 50조·AUM 1000조 돌파 경영철학으로 고객과의 신뢰 쌓아

홍콩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글로벌X’ ETF 전략으로 뿌리 내리 위기에도 해외법인 수익 2배 성장 혁신 기반 ‘킬러 프로젝트’ 강조

배당금 전액 기부,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사회공헌·장학사업 펼쳐

세계에서 운용하는 ETF 자산은 232조원으로, 한국 전체 ETF 시장 규모인 226조원을 뛰어넘었다. 박현주는 하와이 컨퍼런스에서 “킬러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기적인 숫자가 아니라 장기적 신뢰와 브랜드 구축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실적은 위기 속에서 빛났다. 2024년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1589억원, 순이익 8936억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복귀했고 2025년에도 ‘1조 클럽’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25년 1분기 미래에셋증권의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1196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홍콩 등 선진시장뿐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 거둔 이익만 332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모든 해외영화에 100% 관세...가구도 부과 예정”
▲‘배준호·양민혁 포함’ 이민성호, U-23 아시안 컵 대비 사우디 훈련 /사진 뉴시스

▲오타니, PS서도 투타 겸업 WC 3차전 선발 등판 내정
▲KPGA 메이저 우승 성유진, 여자골프 세계랭킹 70위로 상승

▲브라운아이드소울, 고척돔 3회차 ‘단숨’ 매진...약 5만명 규모
▲U-16 여자농구, 아시아컵서 시리아에 55점 차 완승...7위로 마무리